<등장인물>

민희도- ***"두번 다시 내기 따위는 안할거야."***

20대 후반. 길거리 화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운명적 내기에 동참했다 나락으로 떨어진다.

강노식- ***"인생은 어차피 게임이야. 큰 판일수록 신중해야 하는 법이거든."***

50대 초반. 사채계의 큰손. 일평생을 승부사로 살아왔다. 민희도에게 거액을 걸며 이상한 내기를 제안하는 노인.

주은아- ***"당신, 도대체 누구죠?"***

20대 중반.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는 순수한 여자. 연인의 운명적 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

민태석- ***"세월이 마이싱이지!"***

30대 중반. 희도의 사촌형. 맨날 털리는 놀음꾼으로 한방을 꿈꾼다.

이혜린- ***"사랑보단 돈이 먼저죠!"***

30대 중반. 강노식의 처.
돈만을 노리다 강노식에게 버림받고, 민희도의 조력자가 된다.

박창하- 50대 중반. 강노식의 친구로 거대한 체인점의 사주. 상식적이고 인정이 있다.

김박사- 40대 후반.
실력있는 뇌과전문의로 강노식에게 복종한다.

안비서- 30대 초반. 강노식의 오른팔. 과묵하고 충직하다.

윤이사- 40대 중반. 청솔금융의 2인자. 강노식의 자리를 노린다.

그 외
은아부, 엄마, 김사장과 양아치들, 물새와 꽁지, 10대, 주인집 아줌마, 청솔금융 임직원 등 다수.

S#1 프롤로그

어두운 화면, 한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서서히 화면 한 쪽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 터졌다 사라진다.
눈을 의심할 만큼 짧은 순간이지만 어느 새 작은 섬광은 화면 곳곳에 밤하늘에 폭죽이 터지듯이 번져 나가고, 점점 더 그 빛에 다가가면 선홍빛의 붉은 관을 따라 혈류가 구물구물 빠르게 흘러가는 모습으로 확대된다. 수 십 만개의 모세 혈관이 한 지점으로 모여드는데, 그것은 가느다란 별모양의 뉴우런(뇌세포가 다니는 길)뇌세포이다. 스스로 빛을 뿜어내고 있는 뉴우런 세포가 뇌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 반딧불처럼 빛이 발광하고 사라지고를 반복한다.
순간, '끼잉~' 하는 거친 기계음이 귀를 자극하는데... 빛을 뿜어내던 뇌세포가 하나 둘씩 죽어가면서 화면이 다시 어두워진다. 잠깐의 어두운 화면이 사람들의 긴장을 잡아끌면 구석에서 타이틀 **"더 게임"**이 슬며시 떠다 사라지며 강렬한 수술실 라이팅이 '팍' 터진다.

전체적으로 어둡고, 그로테스크한 수술실.
주변에 차갑게 빛나는 금속성의 수술도구들이 준비되어 있고...
한 쪽 슈퍼컴퓨터 모니터에선 뇌단층 영상을 빠르게 계산하며 3차원 영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심전도 기계, '삐삐~'거리며 맥박 그래프를 끊임없이 그리고.
수술대 위에선 검은 덩어리의 선홍색 피가 의사의 손에서 흘러내린다.
긴장한 의사의 입에서 짧은 한 숨이 튀어 나오며,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린다.
'기잉~기잉~'하는 거친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며 화면 서서히 어두워진다. (F.O)

S#2 거리 (낮) - (F.I)

흰 도화지 위로 바쁘게 움직이는 손놀림.
가늘고 매끈한 손이 속도를 높여가면 점점 더 한 점의 초상화가 완성되어 간다.
카메라 후진하면 희도 앞에 빵모자를 눌러 쓴 노인 한명이 앉아 있다.
모자가 눈을 가려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림이 완성되자 희도는 그림을 노인에게 건넨다.
그림을 받아 든 노인은 무뚝뚝하게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희도에게 준다.
희도, 바지 주머니와 가방을 뒤적여 거스름 돈을 찾아보지만 수표를 바꿔줄 금액은 안된다.
난감한 희도, 노인을 올려다보는데, 어느 새 노인은 사라지고 없다. 희도, 주변을 기웃거려 보지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료 화가들과 행인들뿐이다.

<시간 경과>

사람들 틈으로 보이는 희도. 초상화 손님이 없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그때 희도의 핸드폰이 울리며 액정에 SOS 긴급호출 메시지가 뜬다.
깜짝 놀라 핸드폰을 열면 웃고 있는 은아의 사진. 가슴을 쓸어내리며 전화를 거는 희도.

은아: (소리) **여보세요?**
희도: (가볍게 꾸짖듯) **놀랐잖아.**
은아: (애교부리며 소리) **미안…**
희도: 어디야?
은아: (소리) **글쎄…어딜까?**

희도 고개를 들면 분홍장미부케를 들고 서 있는 은아.
굵은 웨이브 긴 머리에 흰 원피스 차림의 청초한 모습이다.

은아: (눈흘기며) **그렇게 맥없이 있지 말라니까…** (도시락을 흔들어 보이며) **배고프지?**
희도: (미안하면서도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끄덕) **응…**

희도 앞에 도시락을 푸는 은아. 정성껏 준비했다는 걸 한눈에도 알 수 있다.
장난도 치면서 정겹게 도시락을 먹는 은아와 희도.

은아: (도시락을 정리하며) **그만 일어나야 겠다.** (시계 보며) **부케를 만들어 달라는 예약 손님 있어서 일어나야 돼.**
희도: (아쉬워하며) **그래…** (은아 바쁘게 일어서면 무언가 생각난 듯) **잠깐…**

희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자신의 왼쪽 가슴에 대고 왼손에 든 무언가를 건네듯 은아에게 내밀면 은아 희도의 손 아래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댄다.

은아: (손을 펴보고 귀엽게 눈 흘기며) **뭐야, 맨 날…**
희도: (웃으며) **내 마음을 니 손에 담아 주는 거야.**
은아: 치…닭살… (급하게 뛰어가다 뒤돌아) **희도씨!**
(귀엽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입 모양으로) **아자!!**

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은아의 뒷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S#3 거리 (해질녘)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무렵.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
돌아갈 채비를 부지런히 하는 희도, 문뜩 생각이 났는지 주머니에서 아까 빵모자를 쓴 노인이 준 수표를 꺼내 본다. 기분이 좋은지 '씨익' 웃는다.
이 때, 울리는 핸드폰

희도: (받으며) **여보세요?**
노식: (소리) **남잔가?** (혼자 박장대소) **내가 이겼군.**
희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 **어디 거셨어요?**
노식: (소리) **이름이 뭔가?**

희도: (머뭇거리다) **민..희돈데요… 누구세요?**
노식: (소리) **민..희..도…좋은 이름이군.** (기침소리)
희도: (귀에서 전화기를 떼며 황당하다는 듯) **뭐야?**
(다시 귀에 대고) **잘못 거신 거 같은데, 이만 끊습니다.**
노식: (소리-다급히) **자, 잠깐. 끊지 말게. 사실은 지금 친구와 내기를 하고 있었네.**
자네 덕에 내가 이겼어. 사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와 주겠나?
희도: (다시 전화기를 떼며 짜증스러운 듯) **미친 거 아냐...** (전화기를 꺼버린다)

S#4 지하철 (밤)

사람이 많지 않은 퇴근길의 지하철.
화방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뭔가 생각이 많은 희도의 얼굴.
정정해 보이는 한 노인이 희도 앞으로 다가온다.

노인: (죽어가는 소리로) **어이, 자리 좀 양보하게.**

희도가 올려다보면, 목소리와 달리 정정한 노인
노약자석인지 확인하려고 뒤를 보는 희도. 노약자석이라고 쓰여진 표지판은 없다.
옆쪽의 노약자석도 비어있다.

희도: (노약자석을 가리키며) **할아버지, 저기도 비었는데요.**
노인: (화내며) **요즘 것들은 하여간 버르장 머리가 없어. 아, 자네는 안 늙을 줄 알아?** (혀를 찬다)

희도, 눈치보다 마지못해 일어서면 잽싸게 자리에 앉는 노인.
희도를 보며 계속 궁시렁 댄다.
주섬주섬 짐을 챙겨 반대편에 서는 희도. 유리창을 통해 비치는 노인의 못마땅한 표정.
그 모습에 은아 아버지의 얼굴이 겹친다

S#5 회상 - 은아 집

은아부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그 옆에 불안한 표정의 은아 엄마.
은아와 희도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있다.

은아부: (못마땅한) **내 딸을 달라고? 길바닥에서 그림이나 그리는 자네에게?**
(코웃음) **지나가던 개도 웃겠네.** (부인에게 화내며) **그래서 내가 꽃집이고 나발이고 못다니게 하랬잖아. 밖으로 내돌리니 별별 녀석들이 다 꼬이는 거 아냐.**
은아 엄마: (은아와 희도를 곁눈질로 살피고, 은아 아빠의 눈치를 보며) **여보, 말씀이 좀..**
은아부: (버럭) **이놈의 여편네가...** (희도에게) **자네 같으면 돈 벌이도 못하는 화가 나부랭이에게 딸을 주겠는가?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봐.** (희도 아무 말 못하면) **내 말 이해했으리라고 믿겠네. 알아들었으면 그만 나가봐.**

기가 죽어 고개도 들지 못하는 희도. 그 옆에서 속상해 하는 은아.

S#6 희도의 옥탑 방 (밤)

옥탑방의 작은 창 쪽으로 빗방울 맺혀 똑똑 떨어진다.
구닥다리 컴퓨터가 놓인 낡은 책상에 앉아 있던 희도, 빗방울이 안으로 번져 들어오자 문을 '탁' 닫는다.
벽에는 그림 몇 장과 초라한 옷가지가 걸려 있다.
모니터 보이면 희도 구인란을 열심히 뒤지고 있다.

<고졸, 영업직 월수 90만원, 학력무관, 배달직 월수 80만원>

컴퓨터 화면 우측 하단에 '모나리자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란 메시지와 함께 대화창이 뜬다.

(모나리자/ 다빈치님 계세요?)
(다빈치/ 네. 모나리자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모나리자/ ^^)
(다빈치/ 뭐하고 있어?)
(모나리자/ 부케 만들다가 보고 싶어서…)
(다빈치/ ^^)
(모나리자/ 희도씨…)
(다빈치/ 왜?)
(모나리자/ 아빠가 하신 말씀, 너무 신경쓰지 말라구.)
(다빈치/ 신경 안써.)

이때 누군가 노크를 한다.

(다빈치/ 은아야, 누가 왔거든.)
(모나리자/ 그래. 이따 다시 불러.)
(다빈치/ 응)

희도: (문 쪽으로 달려오며) **누구세요?**

문을 열면, 화려한 옷차림과 도도해 보이는 표정의 혜린이 서 있다.

혜린: (교양 있어 보이는 어조로) **민희도씨?**
희도: 그런데요?
혜린: (반가워하며) **안녕하세요? 남편께서 꼭 사례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희도: (황당한) **네?**
혜린: 혹시 전화 한 통 받지 않으셨나요? 내기를 했다는....

희도: (기억을 더듬다가 생각난 듯한) **아…**

혜린: 제, 남편이에요. (조심스럽게) **실례인줄 알지만 전화번호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냈어요. 부탁인데, 저와 같이 가주시면 안될까요?**

희도: (어리둥절하여) **아니, 다자고짜 어딜 가자는거에요?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캐면 법에 걸리는 줄 모르세요?**

혜린: (눈을 내리며) **그건 죄송합니다.** (간절하게)**하지만, 민희도씨를 못 모시고 가면 전 남편에게… 아주 잠깐 이면 되요. 제발 같이 가주세요.**

희도: (어이없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구 자꾸 어딜 가자는 거냐구요. 그만 돌아가 주시죠?**

혜린: (불쌍하게) **제발요…** (문틈으로 보이는 방안의 그림들을 보고) **화가시군요.**

희도: (퉁명스럽게) **아직 화가는 아니고, 초상화나 그려주며 먹고 삽니다.**

혜린: (명함을 건네며) **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좀 볼 줄 알죠. 민희도씨 그림...마음에 드는데요.**

희도: (어이 없다는 듯) **그래서요?**

혜린: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남편의 초상화 하나만 그려주세요.

희도: (건성으로) **얼마나 주실 건데요? 한 1억쯤 주실 건가요?**

혜린: (당황하지 않고) **우선 가보시죠.**

약간 놀란 표정의 희도 얼굴에서 화면 잠깐 정지된 것 같은 느낌.

S#7 집 앞 (밤)

주룩주룩 내리는 비. 기사까지 달린 검은색 캐딜락에서 기다리는 혜린.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으리으리한 차를 보고 놀라는 희도. 희도가 차에 오르자 미끄러지듯 출발하는 차. 멀어지는 캐딜락의 뒷모습. 꼬리 등의 붉은 빛이 흐른다.
카메라 틸트업하면 거미줄처럼 얽힌 전신주의 전선들. 웬지 위태하고 불안한 정경.

S#8 달리는 차 안 (밤)

널찍한 뒷자리에 혜린과 희도가 앉아 있다.
어색해 하며 창밖만 보는 희도의 옆얼굴을 보는 혜린.
진지하게 희도를 한 참 쳐다보는 혜린. 엷은 미소를 띤다.

희도: (약간 당황한 듯) **아니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혜린: (시선을 앞쪽에 둔채) **죽음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은 더욱 섬세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하여 죽음이 삶에 대해서 우위를 과시하려는 듯이…**

희도 무슨 얘기냐는 듯 쳐다본다.

혜린: (웃으며) **어떤 책에 보니 그런 말이 있더군요. 남편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한가지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느니 죽음이 남편의 삶에 우위를**

과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희도: (소리) **그것이 악마의 초대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창밖으로 휙휙 스쳐가는 어두운 숲속의 이미지. 추적추적 비까지 내려 적막하기 그지없다.
카메라 크레인 업하면 숲 너머 묵묵히 흐르는 호수.

S#9 노식의 저택 (밤)

저택에 접어든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 어둠 속에 우뚝 서있는 노식의 저택.
차가 거대한 정문 앞에 도착하자 집사가 대기한 것처럼 철문을 열어 준다.
차가 들어서면 어둡고 넓게 자리한 정원이 펼쳐진다. 그 어둠 속으로 빨려가는 캐딜락의 붉은 미등. 사납게 짖어대는 개들의 울음소리. 스르륵 육중하게 닫히는 정문. CCTV 방범등 위로 떨어지는 빗줄기.

S#10 저택 안 (밤)

어둡고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실내. 창이란 창에는 두껍고 높다란 자주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
서늘한 대리석이 주조를 이룬 인테리어. 전체적으로 휑한 느낌이다.
위축돼 두리번거리는 희도. 세상에 이런 집도 있나하는 표정 완연하다.
슬쩍 쳐다보며 거만하게 미소 짓는 혜린.
어두운 정장 유니폼을 입고 무표정하게 인사하는 사람들 몇 명, 그 중 하나 혜린의 겉옷을 공손히 받아든다. 한 켠에는 무표정한 의사와 간호사도 서 있다. 기다란 복도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혜린.

혜린: (희도를 의식하여) **남편께서 건강이 안 좋으세요.**

고개를 끄떡이는 희도. 복도에 나열된 그림들에 눈길이 간다. 고가의 명화들이 제법 눈에 들어온다.

혜린: (응접실로 문을 열며) **여보, 모시고 왔어요.**

S#11 응접실 (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명화. 마치 벽화처럼 보인다.
붉은색 빌로드 소파에 초록색 실크가운을 입고 앉아 담배를 피는 50대 초반의 노식.
희도를 쳐다보는 눈빛이 마치 먹이감을 노리는 사자 같다.
그의 옆 한 쪽에 그림같이 서있는 30대 남자 안비서, 위압감이 흐른다.
그리고 소파 곁 대리석 탁자에는 실크로 가려진 뭔가가 우뚝 서 있는데 높이가 상당한 큰 트로피같이 보인다.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해대는 노식.

혜린: (재빨리 다가가) **괜찮으세요?**

같이 있던 온화한 인상의 친구 박창하가 담배를 뺏어 재떨이에 비벼 끈다.
노식, 조금 진정되고 희도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혜린: (짐짓 들떠) **화가시래요. 당신 초상화를 부탁 드리려고 모셔왔어요.**
노식: (반색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얼굴을?**
혜린: (당황하여) **아,아니요,그런 게 아니라...**
희도: (무안해져서) **저, 초상화가 필요 없으시다면 전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안비서 돌아가려는 희도 앞을 가로막으며

안비서: (낮게 깔린 목소리) **앉으시지요.** (희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으면) **회장님께선 선생을 만나길 고대하셨습니다.**
노식: (미소지으며) **그렇다네.**

담배를 버릇처럼 다시 빠는 노식. 뭉게뭉게 피는 연기의 느린 비행. 만족스런 노식의 표정.

노식: (덤덤하게)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군 어제 장난같은 전화를 받아서 당황했었지. 미안하네. 근데 어떻하나 자네가 전화를 받은 덕분에** (창하를 보며) **이 친구와의 게임에서 이겼지.**(창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이 친구와 난 인생에서 패배를 모르는 독종들이지. 그런 친구와 내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자네와 전화를 하고 난 후부터 나에게 행운이 왔어. 그래서 보답을 하고 싶은데…**

당황하는 희도. 희도를 곁눈질하는 혜린.

노식: (빙긋 웃으며) **감사의 표시로 뭔가를 주고 싶은데...**

희도, 잠자코 있으면

노식: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나와 내기를 한번 해보지 않겠나?** (희도 의아해 하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남자가 받는지 여자가 받는지를 맞히는 거지.**
희도: (황당한) **뭐라구요?**

안비서가 노식의 곁에 있는 테이블 위의 천을 걷으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돈다발. 얼어붙은 표정의 희도.

노식: 10억이야. 승부는 단 한번, 나를 이긴다면 자네에게 이 돈을 주겠네.

돈다발을 보며 마른침을 삼키는 희도. 이내 정신을 차리며

희도: 장난이 과하시네요. (화난 얼굴로 일어서며)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노식: (차분히) **인생 살만큼 산 늙은이가 뭐하러 자넬 놀리겠나? 인생은 어차피 모두 도박이야. 도박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희도: (빙글 거리는 노식의 얼굴을 본다)…
노식: (다시 심하게 기침을 한다)
혜린: 여보 괜찮아요?
노식: (간신히 진정 된 듯) **자, 어쩔텐가....**

진지한 노식의 눈빛. 격심한 갈등에 휩싸이는 희도.
노식, 그런 희도의 표정을 놓치지 않는다.

노식: 단, 조건이 있네. 자네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 걸어야 하네.
희도: (허탈한 웃음) **그럼 그렇지요.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 드릴게 없는데요. 젊은 사람 놀리는 게 취미인가 보죠?**
노식: (희도를 바라보며 뜸을 들이다) **있네.** (희도 의아해 하면) **자네의 건강한 몸.**

희도, 무슨 말인가 싶어 노식을 보다가 혹시… 하는 듯한 표정.
노식, 희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다 알았다는 듯

노식: 이런 뭔가 오해를 하는구만. 걱정 말게나. 난 여자를 좋아해.

노식 곁에 있는 혜린의 세게 엉덩이를 주무른다.
당황하는 혜린 억지로 미소 짓는다. 민망해하는 창하.

희도: 제가 이기면 10억을 갖고, 어르신이 이기면 제 목숨을 갖는다?
노식: 뭐 어렵게 생각할 꺼 없네. 지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노예가 된다 정도로 생각하게. 어차피 난 얼마 안 남았거든. 어때? 이만하면 해볼만하다고 생각되는데?

희도, 조금씩 숨이 가빠지지만 완전히 믿는 눈치는 아니다.

혜린: (나서며) **여보, 10억이나 걸고 이상한 내기를 한다는 건....**
노식: (쏘아보며)**왜, 돈이 줄어들까봐 겁나나?**
혜린: (당황하여)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내기를 한다는 게....**

듣고있던 노식 불쾌한 표정 일순간 스치면 혜린 급히 입을 다물고

노식: (희도와 눈을 마주치며) **인사가 늦었네. 강노식일세. 제 2금융권인 청솔금융의 회장이지.**

희도 놀라는 표정. 노식은 창하을 가리키며

노식: 이 친구는 유명한 할인체인점 두마트의 박창하 사장일세. 내 유일한 친구기도 하고. 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와의 내기나 약속에 있어서 비겁한 짓을 한적이 없네만 정 의심스럽다면 (창하를 보며) **어때, 자네가 이 내기의 보증인이 돼 주겠나?**

창하: (난감한 듯) **뭐, 그거야 어렵지 않지만....어떻게 그런내기를 ....**

노식: (희도를 빤히 쳐다보며) **약속을 어기는 일 따윈 절대 없을 걸세.**

희도:(침착하게) **돈을 못 받을까 봐 망설이는게 아닙니다. 내기 같은 건 안하기로 했거든요. 저희집안이 도박 때문에 패가망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도박은 절대 안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노식: (여유있게) **어쩌면 자네 집안의 운을 전부 자네가 가졌는지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나를 만났다는 것이 그 증거인거 같은데…**

희도: (어이없는 웃음을 짓다) **저는 초상화나 한 장 그려달라고 해서 온 것 뿐입니다.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나가는 희도.

S#12 긴 복도 (밤)

어둡고 긴 복도. 드문 드문 벽에 걸린 차가운 불빛들.
그 아래로 값비싼 명화들이 어둠속에서 드러난다.
그림들을 보며 희도가 터벅터벅 걸어오다 멈춘다.
희도의 옆으로 걸린 그림. <야누스의 두 얼굴> 희도 그림을 잠시 보다가

희도: (부러운 얼굴) **좋은 그림들인데...어쨌든 시간만 버렸네.**

S#13 응접실 (밤)

희도가 나가고 실내엔 침묵이 흐른다.

창하: (침묵을 깨며 위로하듯) **안됐네. 세상 누가 그런 내기를 하겠나?**

노식: (여유있는 웃음) **과연 그럴 까?**

알 수 없다는 얼굴의 창하 그리고 무표정한 안비서. 주인 없이 쌓여있는 돈다발들.
창밖으로 번쩍하는 낙뢰. 섬광에 형상을 드러내는 조형물.

S#14 정원 - (밤)

비에 흠뻑 젖은 희도 정문을 찾아 어두운 정원를 걷는다.
이때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린다. 보면 SOS 메시지가 떠있다.

희도:(웃으면서) **에이, 장난치지 말랐더니....**

전화기 액정을 열면 은아의 긴급 상황 사진이 전송되어 있다. 꽃집에서 낯선남자들에 둘러싸여있는 은아의모습에 놀라서 당황하는 희도. . 급히 뛰기 시작하는 희도.

S#15 꽃가게 안 (밤)

전면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이 자연스럽게 다 보이는 구조인데, 블라이드가 닫혀 가게 안은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가게 안은 장미, 국화 등 갖가지 다양한 꽃들이 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다.
한 쪽 테이블에 은아가 앉아 있는데, 불안한 표정으로 연신 치마단을 내려 다리를 가린다.

S#16 꽃가게 앞 큰길

빗줄기가 더욱 세차게 쏟아진다.
어디선가 온 택시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급하게 끼익 선다. 뒷문이 열리자마자 희도가 뛰쳐나와 총알처럼 비를 맞으며 뛰기 시작한다.

S#17 꽃가게 안

가게 안에는 능글거리는 인상의 40대 김사장과 양아치들 둘이 자리를 턱 잡고 있다.
김사장, 능글거리는 눈으로 장미 꽃 냄새를 맡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군만두를 냉큼 집어 먹는다.

김사장: (은아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군만두 하나를 들어) **워쪄? 좀 먹어 볼랑가?**
(징그럽게) **비올때는 군만두가 최곤디...**

은아 얼굴 획돌려 다른 곳을 본다. 의연한 척 하지만 겁먹은 표정. 게걸스레 먹으며 키득거리는 양아치들.
그 때 희도가 문을 박차고 들이 닥친다. 희도를 보자 반가움에 일어서려는 은아.
하지만 양아치2가 확 밀어 다시 자리에 앉힌다.
문 앞에 선 희도 가쁜 숨을 몰아쉰다.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먹던 걸 멈추고 일제히 희도를 보는 양아치들. 여유만만한 김사장은 담배에 불을 당긴다.

희도: (이글거리며)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양아치1: (희도를 힐끗 보고) **비오는 개벼?**

희도, 은아 옆으로 성큼 다가가려고 한다.
양아치2, 희도의 발을 툭 건다. 잠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질 듯 한 희도.
낄낄거리는 양아치들. 희도, 욱해서 달려드는데 양아치2가 철제의자를 발로 확 민다.
의자에 걸려 바닥에 나뒹구는 희도.

김사장: (다가오며) **재네 아부지가 돈을 빌려갔는디 말이시, 통 갚들 않어. 아부지가 못 갚으면 딸이라도 갚아야지.**
희도: (김사장을 노려보며) **얼만데?**
김사장: (비꼬며) **이자까지 쳐서 한3억 쯤 되는디....자네가 대신 갚아 줄랑가?**
희도: (잠시 놀란다. 이내 침착하게) **어떻게든 마련해 볼테니까 여기서 나가줘.**
김사장:(비웃으며) **어허~ 이거 왜 이래…돈을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공손하게 나가가주세요…하는 게 예의지. 예의도 안 배웠는가?**

이때 양아치1이 희도를 비웃으며 보란듯이 은아의 가슴으로 손이 간다.

김사장: (양아치 1을 보고) **아따, 저거 또 버릇 나오네…**

수치심에 눈물을 보이고 마는 은아. 이를 본 희도 눈에 핏발이 선다. 주먹을 꽉 움켜지고 김사장에게 날리면 김사장 넘어지고 양아치들 달려든다.
양아치들에게 연신 얻어맞으면서도 악착같이 달려드는 희도…

희도: (울분에 가까운 소리) **야, 이 개새끼들아...**

실성한 듯 마구잡이로 손발을 휘두르지만 양아치1의 발이 명치에 꽂혀 주저앉는다.
양아치1의 발을 두 손으로 붙잡고 버텨보지만 이내 달려드는 양아치2,3의 발길질이 희도의 몸 위로 사정없이 쏟아진다. 마지막으로 김사장의 구둣발에 안면을 강타당하는 희도. 붉은 피가 퍽하고 퍼진다. 눈이 반쯤 감긴 희도의 얼굴은 눈물과 피로 범벅된다. 오열하며 달려가는 은아. 자빠진 희도의 상체를 감싸며 어쩔 줄 모른다.

김사장: (다리를 꼬고 앉아) **사랑이 좋은가벼? 더 험한 꼴 안볼라면 삼일 안에 돈갖고 와부러라~알것냐.**

일어서서 희도와 은하를 노려보는 김사장.
고통을 참으며 김사장을 노려보는 희도에게 다시 린치를 가하려는 양아치들.

김사장: 야그들아 고마해라. 이만하면 알아들었겄지.
(양아치들에게) **오늘은 비도오고...몸도 피곤하고 고만 하자...**

부르르 떨고 있는 희도와 울고 있는 은아를 한 번 꼴아보고 가게를 나가는 김사장 일행.

S#18 노식의 응접실 (밤)

문이 급하게 열리고 희도가 들어온다. 희도의 망가진 몰골에 놀라는 사람들.
노식의 표정엔 옅은 미소가 보인다.

희도: (비장하게) **내기… 하겠습니다.**

노식: (호탕하게) **그래? 잘 선택했네.**
회도: 이기면 돈은 틀림없이 주시는 거죠?
노식: 당연하지.

회도의 시점에서 보이는 수북한 돈다발.

창하: (걱정스러운 듯) **자네. 무슨 사연으로 다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섣부른 짓 하지 말게.**
(노식을 보며) **이 사람 평생 이기고만 살았어. 자넨 틀림없이 지게 될 거야.**
노식: (여유 있는 웃음) **선택은 자네가 하게. 지금 그만두고 싶다면 말리지 않아.**
회도: (비장한) **합니다.**
노식: 좋아.

탁자 위의 돈다발들 불빛을 받아 번뜩거린다. 침묵으로 무표정한 사람들.

S#19 변두리 하우스 (밤)

담배 연기가 자욱한 하우스. 둥그런 테이블에 둘러앉아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지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태석.
긴장감이 감돌고 사람들은 곁눈질로 눈치를 살피고 있다.
곁에서 한심한 듯 보는 40대 하우스장 물새. 인상이 험하다.
신경질적으로 주머니를 뒤지던 태석 담배가 없자

태석: (큰소리) **야! 여기 레종 한갑 가져와.**

불량한 인상의 10대 다가와 태석에게 손 내밀며

재떨이: 만원.
태석: 아 새끼 진짜.... 이 판 끝나면 주께. 우선 가져와.
재떨이: 까구있네. 물새형이 형한텐 절대 외상 주지 말라 그랬어.

태석, 슬금거리며 물새쪽을 보다 울상을 짓는다.

태석: (불쌍하게) **한 갑만 줘. 꼭 갚을게.**

외면하는 물새.

S#20 응접실 (밤)

대리석 탁자 위에는 몇 개의 신형 핸드폰이 있다.
차가운 금속의 빛을 뿌리는 핸드폰들.

노식: (희도에게) **앉지.**

희도, 곁에 앉으면 희도의 손을 잡아 만지며 야릇한 표정의 노식.

노식: 아주 매끈한 손을 가졌군. 젊다는 건 좋은 거야. 그치? 그럼 시작할까?

잔뜩 긴장하는 희도. 피 범벅된 얼굴에 땀까지 흘리고 있다.
노식, 핸드폰 하나를 들어 보이며

노식: 도구는 내것을 써도 상관없지만... 오해를 사기 싫으니 자네 것으로 하게.

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담한 제 핸드폰을 꺼낸다.

노식: 자 그럼 방법을 설명할까? 여자와 남자 중 한쪽을 선택하고 자네와 내가 번갈아 말하며 전화를 거는 거네. 여자가 받는지 남자가 받는지를 맞추는 내기지. 아주 간단하지? 승부는 단 한번이야.

끄덕이며 열심히 듣는 희도의 옆얼굴. 식은땀이 흐른다.

노식: 단, 사용 않는 번호거나 부재중일 때는 다시 하는 거야. 010은 미리 눌러두고 시작하니까 나머지 여덟자리가 승부를 가르는 거지. 그럼 시작할까? 자네가 먼저 선택하게.
희도: (잠시 생각, 결심한 듯) **여자로 하겠습니다.**
노식: 그럼 내가 남자구만. 이제 시작하게.

희도 핸드폰을 열어 010버튼을 천천히 누른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

희도: 먼저 부르시지요.
노식: 육.

부르는 숫자에 따라 희도는 버튼을 누른다

희도: 저는 삼을 누르겠습니다.
노식: 다음은 팔.
희도: 오.
노식: 삼.
희도: 팔.
노식: 칠.
희도: 마지막 번홉니다. 구로 하겠습니다.

번호판 구를 누르는 희도의 손. 가늘게 떨린다.

눌러진 번호가 액정에 찍히면서 신호가 간다. 잠시 흐르는 정적.

상대방: (소리) **저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희도: (기뻐하며) **여자다....** (흥분하여) **여자예요. 여자....**

들떠서 주변을 돌아보는 희도. 반응 없는 노식. 그리고 사람들. 어색한 희도 자신을 향한 시선을 느끼며 입을 다문다.

노식: (냉정한 목소리) **부재중일 때는 무효라고 했을 텐데....**
희도: (멋쩍어) **그... 그렇죠.**
노식: 다시하지. 이번엔 내 전화를 쓰도록 하지. 번호는 자네가 먼저 말하게.

다시 010을 누르는 노식의 손. 전혀 거침이 없다. 희도의 표정 더욱 초초해진다.

노식: (여유있게) **이**

소리와 함께 눌러지는 핸드폰의 숫자버튼.

희도: (긴장해) **저는 팔로 하겠습니다.**
노식: 자, 마지막이군. 나는 사를 누르겠네.

핸드폰의 숫자 사 버튼을 꾹 누르는 노식의 손. 희도 불안해 지며 노식을 본다.
이내 얼굴과 눈에 핏발이 서며 숨이 차는 노식의 표정.

혜린: (놀라) **여보. 왜 그러세요.**

심장을 쥐고 고통스러워하는 노식. 숨을 헐떡이는데 곧 죽을 것만 같다.

안비서: (인터폰으로) **김박사님!!**

노식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곧 김박사와 간호사가 들어온다.
희도, 노식의 손에서 떨어진 핸드폰을 바라본다. 연결중이다.

S#21 복도 (밤)

노식이 누워 있는 응급 침대를 끌고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 그 뒤를 따르는 안비서와 혜린, 창하.
핸드폰을 든 채 그 뒤를 따르는 희도.

S#22 수술실 (밤)

긴장한 의료진들 분주히 움직이고 노식의 몸에 기계들이 빠르게 부착되고 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노식의 모습. 심장이 강한 경련을 일으키는지 가슴을 솟구쳤다 내리기를 반복한다.
심전도의 그래프들이 매우 낮아지자 김박사는 급히 심폐소생술을 한다.

김박사: (그래프가 삐소리를 내며 평행선이 되자) **AED!** (간호사가 급히 전기 심장 충격기를 건네면 충격기를 맞대어 묻어 있는 젤을 비비고) **100 줄!** (노식의 가슴에 전기 심장 충격기를 갖다 댄다. 충격으로 인해 노식의 몸이 잠깐 솟구친다. 그래프가 변함없자) **200줄!** (노식의 가슴에 충격기를 다시 대면 노식의 몸이 또 솟구친다. 심각한 얼굴로) **300줄!**

다시 충격기를 가슴에 대는데 그래프가 반응하다 이내 낮아진다.
'삐~' 하는 불길한 경보음. 평행선을 그리는 그래프.... 계속 흐른다.
일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들. 미동이 없는 노식.
김박사 혜린을 보며 고개를 가로 젓는다. 눈을 질끈 감는 혜린

S#23 복도 (밤)

전화기를 들고 수술실 문 앞에서 오락가락하는 희도. 핸드폰에서 별안간 여자의 음성이 들린다.

상대방: (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며 반사적으로 수술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들뜬 표정의 희도.

S#24 수술실 (밤)

희도: (격양된 어조로) **봐요, 여자예요. 제가 이겼어요. 여자라구요.**

무표정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경보음을 내며 평행선을 그리는 심전도 보인다.
대충 사태를 파악하는 희도 두리번거린다.

혜린: (냉정히) **돌아가. 남편이 죽었으니 내긴 무효야.**
희도: (당황하여) **네?**
혜린: **못알아 들었어? 남편이 죽었으니 내긴 무효라고…**(삐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름끼치게 웃으며 표정 돌변) **드디어 끝났군. 질기게도 오래 살았어. 한 달만 더 살았으면 내가 숨이 막혀서 먼저 죽었을 거야.**

이를 보는 창하의 슬픈 표정. 체념의 빛이 어렸다.
무표정한 안비서와 김박사. 어리둥절한 표정의 희도 이내 정신을 가다듬은 듯이

희도: (다급히) **저, 잠깐만요.**
혜린: (경멸하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내기를 믿었다니 한심하군.**
그러니 그 꼴로 살겠지만....

당황하는 희도 초초해진다. 돌아선 혜린은 눈동자를 굴리며 산만한 움직임으로 바쁘다.

혜린: (혼잣말) **뭐부터 해야 되지?** (안비서를 보고 매우 빠른 어조로) **본사 임원들에게 연락해.**
이제 청솔금융의 모든 지분은 내가 상속 받는거야.
가만있자....변호사들에게도 연락해야지?

정신없는 혜린의 태도를 묵묵히 바라보는 안비서.
혜린은 그런 안비서를 보고 불쾌한 듯.

혜린: (앙칼지게) **뭘 꾸물대? 싫다 이건가?** (비웃으며)**싫음 말고...**

무표정한 안비서 물끄러미 혜린을
쏘아본다. 일순 당황하는 혜린. 그러나 짐짓 침착을 가장하며 마주 본다.

혜린: (무표정하게) **왜 기분 나쁘세요? 안비서님? 니 잘난 주인님의 유언대로 하는 거니까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하찮다는듯) **됐다. 됐어. 내가 걸께. 어차피 너도 이젠 백수건달 신세니까.**

마주보던 안비서의 시선이 혜린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전화를 꺼내던 혜린, 안비서의 시선을 따라 무의식적으로 돌아보면....
침대에 일어나 멀쩡히 앉아 있는 노식, 혜린을 한심하다는 투로 보고 있다.
경악하는 혜린 전화를 떨어뜨린다.

노식: (노여운 표정) **이런 간단한 연극조차 간파하지 못해서는 청솔금융을 맡을 자격이 없지…역시 내가 본 대로야....**

혜린 당황해서 김박사를 바라본다.

김박사: (표정 변화 없이) **심전도를 조작했습니다.**
혜린:(분해하며) **모두가…모두가 날 속였어군요?**
노식: 으음…속이다니…넌 내기에 진거야. 벌써 잊었나? 내가 죽는 순간 한 방울의 눈물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난 전 재산을 너한테 걸었었는데.
혜린: (억울하다는 듯) 이, 이건 반칙이야.
노식: 반칙? ....인생에서 승부는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지. (허탈하게 웃다가 이내 냉정히 혜린을 쏘아보고) **네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을 보고 싶었다. 죽어도 울어줄 사람조차 없는 쓸쓸함이 어떤 건지 너가 알아?** (무섭게) **내기에 졌으니 어떻게 해야하는진 알고 있겠지?**

혜린: (분해하며) **실컷 갖고 놀다가 빈손으로 내쫓겠다고?**
노식: 빈손이라니…네 앞으로 해준 갤러리도 있고, 돈되는 미술품들도 많을텐데...그걸로 부족한가? (차갑게)....**마음 같아서는 네 인생을 한방에 박살낼 수도 있어.**

분을 삭히지 못하고 노식을 한참 쏘아보다 휑 나가버리는 혜린. 그런 혜린을 보고 쓴 웃음을 짓는 노식.

S#25 변두리 하우스 뒷골목 (밤)

쓰레기봉투 위에 내뒹구는 태석. 코피를 질질 흘리며 비굴하게 웃는다.
이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물새와 덩치 큰 꽁지. 추적거리며 그 위로 내리는 비.

태석: 아이, 갚는다니깐. 갚는다구...
물새: (물끄러미 쳐다본다)....
꽁지: 7백에다 오늘 삼백....한장이다. 너같은 그지새끼가 어떻게 갚을건데?
오늘 한판해서 다 갚는다매? 그러더니만 어딜 토껴!
태석: (비굴하게) **화장실가려고 했던거야! 나 못믿어?** (물새를 보며) **형! 나 못믿어?**
나야 나 민태석이라구!

물새 담배만 피워댄다. 물새를 보며 칼로 손톱을 다듬는 꽁지,
태석 코피를 훔쳐내며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린다.

꽁지: (칼로 위협하듯) **이 새끼 이거....순 사기꾼 같은 새끼....확 죽일 수도 없구.**

말없는 물새 담배를 툭 던지고 발로 비벼 끈다.

물새: (무표정) **....그러지 말고 하나 자르자.**

꽁지가 억지로 태석의 윗도리를 벗긴다. 신장 부분에 이미 수술 자국이 나 있다.

물새: (황당) **이 새끼 이거…**
태석:(불쌍하게 웃으며)**벌써 써버렸거든... 다른 거 자르면 안될까?**

꽁지와 물새, 태석을 발길질 해 버린다

S#26 수술실 (밤)

노식: (몸에 붙은 기계들을 떼어내며) **흉한 꼴을 보였군. 교통정리를 좀 해야지.**
창하: (조금은 불쾌한듯) **이 친구야, 이런일은 귀띔을 좀 해주든지 해야지....나.. 원.. 참....**
노식: (웃으며) **미안하네.** (어리둥절해 서 있는 회도를 보고) **그럼 게임을 계속 하도록 할까?**
회도: 예?

노식: 내기 말야. 다시 해야지.
희도: (어이없어 하며) **기회는 단 한번 아닌가요?**
노식: (웃으며) **미안하네. 아까 전화를 거는 도중에 쓰러졌으니 다시 하자는 거였네만. 화난 건가?**
희도: 아니요. 승부는 이미 끝났어요. 여자가 받았다구요.
노식: (창하를 보며) **이 친구 말이 맞나?**
창하: 글쎄, 정신이 없어서 난 잘 모르겠는데…
희도: (자신 있게) **그럼 재발신 해볼까요?**
노식: 그러게나.
희도: (재다이얼 버튼을 누르려다 말고) **....여자가 받으면 돈은 주시는 거죠?**
노식: (웃으며) **걱정하지 말게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재다이얼 버튼을 꾹 누르는 희도. 신호음이 간다.
득의만만한 표정으로 노식에게 핸드폰을 건네는 희도.

상대방: (허스키한 여자목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의미심장하게 목소리를 듣는 노식.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된 표정이다.

상대방: (신경질적으로)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야!**

전화기를 끄는 노식 표정이 없다.

희도: 들었죠? 여자 목소린 거....제가 이긴 거 맞죠?
창하: (노식를 보며) **자네의 운도 여기까지인가 보네.** (희도를 보며) **여자가 받았으니 자네의 승리일세. 이제 10억은 자네의 돈이야. 내가 보증하지.**

행복한 희도 창하에게 꾸벅 절을 하는데 이를 보는 노식 천천히 입을 연다.

노식: 잠깐만... 한번만 더 들을 수 없을까?
희도: (여유있게) **얼마든지요.**

희도 악의없이 노식을 지켜보고 무표정한 노식이 다시 재발신 버튼을 누른다.

상대방: (동일한 목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점차 감정이 실리며 굵어지는 음성)**야! 너 누구야? 왜 오밤중에 장난전화하고 지랄이야?**

전화에 귀를 기울이는 노식.
여자 같지 않은 욕설에 노식, 서서히 표정이 바뀌며 슬슬 미소가 번진다.
화면 반으로 분할되면서 열받은 상대방의 모습이 우측에 보인다.
여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구렛나루가 듬성듬성 난 건장한 남자.

한 손으로 마스카라를 그리며 열심히 밤 화장을 하던 중이다.

상대방: (확연한 남자목소리로) **너 딱 걸렸다 변태새끼. 매일 훔쳐보는 그 새끼 맞지?**

당황한 희도, 노식에게서 전화기를 홱 낚아채며

희도: (정신없이) **당신 여자죠? 여자 맞죠? 여자....**
상대방: (굵은 남자 목소리) **그래 새끼야. 쌍방울달린 여자다. 어쩔래? 왜 쏠리니? 한번 주까? 재수없는 새끼. 그거 알려구 계속 전화질했냐? 할 일 없으면 딸이나 쳐 이 개새끼야!**

신경질적으로 '탁' 끊기는 전화.

희도: (기가 막혀) **여보세요? 여보....**

화면, 다시 원래대로 빠르게 바뀌고
전화기를 든 채 망연자실한 희도.
돌부처마냥 웃고 있는 노식.

노식: 마지막 승부는 신중해야 하거든…큰 판일수록 실수가 잦은 법이지.
창하: (놀라며) **자네의 운은 대체…**
노식: 여자라고 하기엔 목소리가 너무 굵지 않던가?

얼이 빠진 희도.
노식, 낙담한 희도의 양볼을 두 손으로 강하게 감싸며

노식: (무표정) **이제....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차례인가?**

S#27 희도의 집 옥탑 (밤)

여기저기 얻어터진 태석
삐걱대는 철계단을 어기적거리며 올라온다

태석: (술주정) **희도야, 민희도! 방에 없냐?**

인기척이 없자 문 옆의 고무다라이를 들어보는 태석. 그 안에 열쇠가 보인다.

태석: (고통에 찡그리며) **짜식, 그래도 형님 오실 줄 알고 열쇠는 놓고 나갔네....**

방에 드러워 아무렇게나 들어 눕는 태석
(시간경과)

태석: (부스스 눈뜨며) **2박 3일을 꼬박샜더니 피곤해 죽겠네.** (방안을 둘러보며)
아, 근데 이 자식은 어딜 간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쪼로루' 배고픈 소리가 나는지 배를 웅켜 잡는다. 누운 채로 주머니를 뒤적이는데, 백원 짜리 동전 두 개가 달랑 잡힌다.
그 때 방 구석에 뜯지 않은 라면 몇 개가 눈에 보인다.
얼른 일어나며 비에젖은 바지를 벗는다. 윗옷까지 벗으면 들어나는 몸.
옷걸이에 걸린 희도의 츄리닝을 집어 든다. 입으려다 말고 거울 앞으로 가는 태석.
거울로 자신의 몸을 비춰보며 근육 자랑을 한다.
배의 오른쪽 부분에 흉터가 하나 보인다. 그 흉터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쳐본다.

태석: (신장을 떼어낸 배부위를 쓰다듬으며) **주인 잘못만나 고생 많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 민태석이 한테도 한방이 온다.**

씩, 웃어보는 태석.

S#28 수술실 (밤)

씬1의 프롤로그 장면이다.
머리를 마주 댄 방향으로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희도와 노식.
희도의 머리는 이미 열려진 상태.
유리 거울 안의 슈퍼컴퓨터가 희도의 머리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박사, 슈퍼컴퓨터가 보내주는 영상을 앞에 달린 모니터로 세심하게 확인하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희도와 노식의 열려진 머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 둘을 바라보다 이내 적외선 영상 라이트를 끌어와 둘의 머리 위에 비친다.
김박사의 수술복과 장갑에는 피가 엉켜 붙어 있고, 그 바닥의 관으로 피들이 시커멓게 흐르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가슴 동맥과 팔로 속도를 내며 떨어지는 링겔과 수혈.
슈퍼컴퓨터, 검은 뇌와 선홍색의 붉은 기운이 감도는 뇌를 정확히 계산해서 컴퓨터그래픽 화면으로 서로 바뀌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준다. 김박사, 일치되는 포인트를 슈퍼컴이 정확하게 잡아내자 즉시 주위 의사들에게 고개 짓을 한다. 그들 드디어 희도와 노식의 뇌를 각자의 머리에서 끄집어낸다.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김박사.

S#29 은아의 집 (낮)

양아치1,2들 서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 김사장과 은아, 은아부.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은아부의 비굴한 모습. 그 앞에서 비딱하게 손톱을 깎는 김사장의 야비한 표정.

은아부: (거의 울상) **딱 한 달입니다. 이자까지 쳐서 다 갚겠습니다.**

양아치1, 심드렁한 표정으로 반응 없다. 그저 손톱을 톡톡 깎아 댈 뿐.

은아부: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김사장: (비꼬며) **목숨이라? 그게 돈 되는 게 아니잖아.** (손톱깍기를 바닥에 던지며) **나이 처먹고 나랑 장난하자는 거여 뭐야!**
은아부: (겁에 질려) **사장님…. 딱 한 달입니다.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김사장의 발 앞에 별안간 무릎을 꿇는 은아부.
깜짝 놀라는 은아.
이를 내려다보는 김사장 은아부의 뒤통수를 슬슬 쓰다듬으며

김사장: 그려그려 알었어. 아, 내 마음이 요렇고롬 약햐. 딱 한 달이여. 날짜 넘기면 (고갯짓으로 은아를 가리키며) **알지?**
은아부: (순간, 놀라지만 다시 굽실대며)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굽실대는 아빠의 모습에 눈물을 떨구는 은아. (F.O)

S#30 알 수 없는 장소

자막 – 한 달 후

누군가의 시점으로 보이는 천장의 형광등.
그러나 안개가 낀 듯 뿌옇게 보이는데 서서히 초점이 맞기 시작한다.
순간, 화면 뚜렷하게 잡히며.
눈을 번쩍 뜨는 희도.
얼굴을 들어 자신의 몰골을 훑어보는 희도.
검버섯이 핀 손, 바싹 말라붙어 있는 볼품없는 다리와 상체.
희도, 정신적인 충격이 왔는지 힘들게 숨을 헉헉 들이키며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한다.

<몽타주>
- 희도, 침대에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처절한 모습.
- 희도, 침대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찾는 듯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
- 희도, 어두운 방안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시간경과)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려다가 변기통 안에 고여 있는 물을 보는 희도, 갑자기 물속에 비친 늙고 추레한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는 의아하게 한 참을 보다가 갑자기 그 물속의 모습이 자신 임을 깨닫자 믿기지 않는 듯 변기통 안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깝게 가져가 본다. 충혈 된 눈으로 물에 번지는 늙은 노식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댄다. 곧장 흩어지는 물. 변기통에서 손을 빼자 다시

늙고 추레한 노식의 얼굴이 그려진다. 희도, 미치겠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쥐어뜯고 머리를 쥐어 잡으며 괴로워한다. 흐느끼는 희도.

(시간경과)

죽은 듯이 눈물을 흘리며 누워있는 희도의 침대 곁으로 안비서가 다가온다.
희도 안비서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만 움직일 힘도 없다.

안비서 : (차분하게) **당신이 원한 게임에서 진 대가야.**
희도 : (안비서를 쳐다보며,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질 않는다)
안비서 : (감정 없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 현실을 빨리 받아들리는게 좋을텐데.**

희도 : (자신의 모습을 훑으며 힘들게 말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안비서 : (약간 강한 어조로) **내말을 못 알라듣는군. 어쨌거나 게임은 끝난 거야.** (주머니에서 약봉투를 꺼내고 주며) **당신한테 생명 같은 약이야. 하루라도 더 살려면, 꼭 챙겨 먹어.**
희도 : (갑자기 당황하며 눈이 불안해 진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희도, 믿기지 않는 듯 다시 늙고 검버섯이 핀 손을 들어 보며 벌벌 떤다.

안비서 : (태연스럽게) **당신이 원해서 한 거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닐 텐데? 확인시켜줄까?** (소형녹음기를 꺼낸다)

녹음기에서 희도의 말이 먼저 흘러나온다.

희도: *(녹음기 소리)* ***내기… 하겠습니다.***
노식: *(녹음기 소리)* ***그래? 잘 선택했네.***
희도: *(녹음기 소리)* ***이기면 돈은 틀림없이 주시는 거죠?***
노식: *(녹음기 소리)* ***당연하지.***

귀를 기울여 집중하며 듣고 있던 희도.

희도 : (목소리 톤이 높아지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안비서, 녹음기를 끄며.

안비서 : (희도의 이런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강압적인 목소리로) **여기서 몇 달 살다 그냥 죽을래, 나가서 빛이라도 보고 죽을래... 다시 말하지만 게임은 끝났어.**

안비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문다.
희도, 마치 미이라가 된 듯 그대로 굳어 버린다.

S#31 큰 골목 (낮)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멀리서부터 집 옥상에 옥탑들이 들어선 게 보인다.
자동차 한대가 서서히 들어오다 멈춘다.
안비서 먼저 내려 뒷문을 열어준다.

안비서: (낮은 어조로) **내려.**

내리는 희도,
햇살이 강렬한지 눈을 잘 뜨지 못한다. 희도 한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다른 손으로 해를 가리며 주변을 쭉 둘러본다.

안비서: (강하지만 낮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희도, 힘없는 얼굴로 안비서를 쳐다보는데 안비서 차에 오른다.
곧, 차는 골목을 유유히 벗어난다.
두툼한 약봉투를 든 희도, 떠나는 차를 넋 나간 사람처럼 쳐다본다.
간신히 몸을 추스르는 희도, 지끈 거리는 머리를 만져본다.
힘들게 발을 내딛어 어느 건물 앞에 선다. 건물 유리에 비춰본 자신의 모습. 희미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손으로 눈을 비벼 다시 한번 본다. 희도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고 그 모습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나타난 모습은 노식이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옆 유리로 걸음을 옮긴다.
다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다.
뚜렷한 노식의 모습이다. 다시 옆 유리로 가본다. 역시 노식이다.
머리에 씌워진 모자를 벗으면 꿰멘 자국이 보인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손으로 더듬으며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하고 분노한 표정 같기도 하다.
고함을 지르며 유리창을 깨고 오열하는 희도.

S#32 노식의 욕실 (낮)

타원형의 큼직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건장한 남자의 뒷모습.
욕조의 둘레에 모형 철길이 조성되어 있다.
장난감 기차가 그 철길을 따라 달리고 있고 기차의 화물칸에 와인과 와인잔, 과일안주 등이 실려 있다. 옆을 지나가는 기차를 세워 와인잔을 집고 와인 한잔 따르는 남자. 다시 기차를 출발시킨다.
수증기 때문에 남자의 실루엣만 보인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안비서. 예의를 갖춰 인사한다.

안비서:(자신있는 말투로) **잘 처리했습니다.**

노식 달리는 기차 위에 와인잔을
내려놓는다.

노식: 잘 챙겨.

욕조에서 일어나는 노식. 그런 노식 앞에 얼음물을 내미는 안비서. 그 물을 마시는 노식.
안비서가 다가와 가운을 입혀준다.
뒤도는 노식. 희도의 얼굴이다. 머리에 수술로 궤멘 자국이 선명하다.

노식 : (시니컬하게 웃으며) **내가 젊어지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 줄 아나?**
안비서 : 아무래도 평생 숙원이셨던 은행 인수겠죠.
노식 : 아니, 일 쪽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말야.
안비서 : 글쎄요... (생각하다가) **다시 학교에 다니시는 거요?**
노식 : (고개를 가로 젓는다)
안비서 : (야간 농담조로) **그럼 근사한 연애?**
노식 : 물론, 두 가지 다 틀린건 아닐세. (씨익 웃고) **그치만 제일 하고 싶었던건 바로...** (물잔을 보며) **이거야. 얼음물을 마시는거... 자네도 늙어보면 알거야. 시린 이가 얼마나 골칫거린지.**

조용히 웃는 안비서.

S#33 노식의 집 내 김박사 사무실 (낮)

각종 의학 전문 서적이 서재를 빼곡히 채우고 있다.
김박사, 책상에 앉아 차트를 들쳐보고 있는데.
멋진 스타일의 가발을 쓴 노식이 벌컥 들어온다.
김박사, 노식을 보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다.

노식 : (앞의 소파에 앉는다)
김박사: (다가오며)**좀 어떠십니까?**
노식: (희도의 목소리) **아주 상쾌해.**
김박사:(무표정하게)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서 다행입니다.**
노식: (웃으며)**그래, 수술은 완벽하게 끝난 건가?**
김박사:(차분하지만 긴장된 말투로) **지금까지는 거부반응이나 부작용 우려는 없습니다. 시각, 청각, 감각 등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하루 한 번씩 면역 억제제만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정도까지만 이 상태를 유지하면 완벽합니다.**
노식:(조금심각해지며) **그럼, 1년 정도 민희도가 살아있어야 겠군. 그런 건가?**
김박사:(희도를 안심시키듯) **그 정도로 염려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요.**
노식: (표정 바뀌며) **고맙네. 그래, 다 자네덕분이야. 자네 아니면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자넨 최고야 최고.**

김박사: (약간 송구스러운 듯) **아닙니다. 상대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체질, 뇌의 크기, 뇌 신경세포, 모든 것들이 회장님과 잘 맞았습니다.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야릇한 미소를 입가에 흘리며) **한번, 옷깃을 스치기 위해선 전생에 3천 번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들 하든데... 회장님께서 그 청년과 깊은 인연이 있었겠지요.**
노식: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지도 모르지…**

그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안비서.
노식과 김박사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하고

안비서: 박사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노식: (얼굴이 활짝 밝아지며)**그래? 나가봐야 겠군.**

노식, 자리에서 일어나자 김박사 따라
일어선다.
김박사, 왠지 노식 앞에서 주저거리는데...

노식 : (보며) **나한테 할 말이 있나?**
김박사 : ... 아닙니다.

사무실을 나가는 노식의 등뒤로 고개를 꾸벅 숙여 예의를 표하는 김박사.

S#34 응접실 (낮)

창하가 응접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문이 열리면 응접실로 들어서는 노식. 어느새 고급스런 양복으로 갈아입었다.
창하 젊어진 노식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다.

노식: (아주 반갑게) **많이 기다렸나?**
창하: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 자네…**
노식: (웃음 띠며) **뭘 그렇게 놀래?**
창하: 자, 자네 노식이가 맞아?
노식: 그래, 맞아. 얼마 전까지 자네와 매일 게임을 하던 강노식이 맞네. 물론 껍데기는 민희도지만....
창하: 그, 그 청년은 그럼…
노식: (조금은 희도가 안됐다는듯) **죽어가는 몸을 걸치고 어딘선가 살고 있겠지.**
창하:(아직도 못믿겠다는듯) **어..뭥게...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건가?**
노식: 불가능하지. 다른 사람들에겐… 하지만 김박사에겐 가능한 일이었지. 왜 내가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를 옆에 두었겠나? (몸을 낮춰 창하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이듯) **그는 실제로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 성공을 확신했네. 물론 모든 실험들은 불법적인 것이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뇌 이식수술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 하지만 나는**

물론 그 청년도 무사하다네. 사람을 죽이지 않고 끝낸 거지. 어때? 인생 최대의 도박에서 승리한 나를 축하해 주지 않을 건가?

창하: (여전히 놀란 기색) 자네, 제정신인가? 난 아직도 현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네.

노식: (씨익 웃으며) 김박사가 수술상대로 놈을 골라낸 후, 난 놈을 유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던 게야. 자네에게도 비밀이었기에 본의 아닌 속임수를 썼군. 그날 딴 돈은 모두 돌려주겠네. (미안한듯)이해해 주게. 하지만 승부에는 아무런 조작도 없었어...무엇보다 공정한 내기였네.

창하: (따지듯이) 공정했다고? 그 청년은 인생 전부를 걸었네. 그런데 자넨 일부분을 걸었을 뿐야. 공정했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전 재산을 걸었어야지.

노식: (노식도 톤이좀 올라간다) 그럼 돈에 눈이 어두웠던 그 녀석은 잘못이 없단 말인가? 내가 강제로 시킨 건 아니잖나. 그 놈도 돈에 욕심이 있었던 게지.

창하: 욕심이 아니야.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겠지.

노식: (의아해하며) 이유?

창하: (그날을 떠올리며) 내기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네. 그 청년이 놓쳤던 전화기를 내가 들고 있었어. 전화벨이 울리더군. 몇 번이나 울리 길래 전화를 받았었네.

S#35 회상 (밤)-응급실

창하: (전화기를 열어) 여보세요?

(분할화면)

은아: 저기, 민희도씨 전화 아닌가요?

창하: (당황하며) 마, 맞아요.

은아: (차분하게)근데...누구시죠?

창하: (얼버무리듯) 친, 친척아저씬데…

은아: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희도씨 옆에 없나요?

창하: (머뭇머뭇) 어디 좀 갔는데…왜 전할 말 있어요?

은아: (또박또박한 말투로) 네....저기 그럼요, 아버지 빚은 한 달 여유를 얻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창하: (의아한 듯) 무슨 말인지....

은아: (상냥하면서 차분하게) 그냥 그렇게 말하면 희도 씨가 알거에요. 죄송해요. 희도씨 들어오거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창하: 그, 그래요....

S#36 응접실 (밤)

창하: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네만 못 받았네. 자네가 한 달 후에나 보자고 하길래 그 친구를 노예 부리듯 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전화길 돌려주려고 온 거네. (노식에게 핸드폰을 건네며) 그 청년에게 전화기를 돌려주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겠지. 버리든지 전화가 오면 받든지 자네가 알아서 하게. 난 30년 지기 친구인 자네에게 너무

실망했어....자넨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무표정한 노식. 뒤도 안 돌아보고 휑 나가버리는 창하.
가만히 핸드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노식. 창가로 가 돌아가는 창하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노식: (이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안비서에게) **내일 오후에 중역들 소집해. 가봐야겠다. 가서 죽은 강노식의 숨은 아들인 내가 새롭게 회사의 실권을 쥐게 되는 거야.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
안비서: (걱정스럽게) **아직 무리하지 않으시는 편이....**
노식: 괜찮아.
안비서: (두말없이)**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S#37 노식의 집 앞 (낮)

자신이 게임을 하러 들어갔던 노식 집의 굳게 닫힌 철문을 있는 힘을 다해 밀치며

희도: (울분에 차서) **야이 미친놈들아~ 다나와~ 제발 강노식을 만나게 해줘! 강노식을 불러달란 말이야!**

희도의 울부짖는 소리에 건장한 노식의 집사가 뛰듯이 성큼성큼 다가온다.

집사: (희도의 모습을 보곤 잠깐 멈칫 하지만) **무슨 일이죠?**
희도: (사람이 나오자 그나마 반가운 얼굴로) **강노식을 만나게 해줘요!**
집사: (화내며) **이 사람이 어디서 회장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 회장님은 한 달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
희도: (숨을 헐떡이며) **아뇨! 틀림없이 살아 있어요.** (머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내 몸을 훔쳐서 뇌를 서로 바꿔 넣었단 말이에요!**
집사: (크게 웃으며)**뇌를 서로 바꿔 넣었다고?** (희도를 한 심 하다는 듯이 보다가)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희도: (거의 발악수준) **내기에 졌다고 정말로 몸을 바꾸다니... 나야 말로 경찰을 부를 거야! 이사기꾼들아...**
집사: (희도를 퍽 밀치며) **썩 꺼지지 못해, 이놈의 영감탱이가 노망이들었나! 여기가 어디 어디라고 소리를질러!** (다시 한번 강하게 희도를 밀어버리는 집사)

희도, '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다.
희도, 끄응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집사의 다리를 잡고 간신히 일어난다.

집사: (발로밀며) **이런.. 재수없는 영감탱이! 썩꺼져!**

희도, 철문 안에 있는 집을 도저히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자 어쩔 수 없이 돌아선다.

S#38 경찰서 (낮)

혼잡스런 경찰서의 내부풍경. 답답한 표정으로 담배를 무는 경찰에게 순진해 뵈는 여경이 다가온다.

여경: (궁금한 듯) **선배님, 저 할아버지 왜 그래요?**
경찰: (짜증난 듯) **나도 모르겠다. 뭔애기를 하는지...**
여경: (더욱 궁금한듯) **왜요? 뭐라는데요?**
경찰: (자세를 고쳐앉아 여경에게 설명한다) **너 잘 들어봐. 어느 날 너랑 나랑 내기를 했어.** (여경의 몸을 한번 훑어보고)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쳐. 근데 내가 이겨서 니 몸을 가진 거야.**
여경: (징그럽다는 듯)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몸을 갖다니요.**
경찰: (다시 한번 설명하려는 자세) **그러니까 니 몸에 나의 뇌를 이식시키는 거지. 그리고 내 몸엔 너의 뇌가 이식되는거구.**
여경: (화내며) **선배 지금 나 놀려요? 내가 평소에 좀 덜떨어 졌어두 그렇지,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믿을 꺼 같아요? 선배야 말로 오늘 이상하네..**

여경 화내며 홱 돌아서서 가면 경찰 여경을 부르려다 말고

경찰: 그렇지? 내가 들어두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구. (여경이 돌아간 곳을 쳐다보며) **근데 쟤는 왜 나한테 화내는 거야. 말해 달라구 한 게 누군데…**

경찰은 회도가 앉아 있는 의자로 다가온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만원짜리 한장을 회도에게 건넨다.
회도 만원을 들고 경찰을 계속 쳐다보면

경찰:(머뭇거리며) **적어서 그러세요?...**

계속 경찰을 쳐다보는 회도, 할수없다 는 듯 만원을 더꺼내 주는 경찰.

경찰: (안쓰럽다는 듯) **할아버지, 어디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드시고 빨리가세요. 이런데 오래있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
회도: (발악하듯) **지금 내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아저씨..난 몸을 바꿔치기 당했다구요....**
경찰: 알았으니까....이만원 가지고 가세요, 우리도 바빠서 죽겠다구요.
회도: (경찰의 다리를 붙들고) **아저씨 진짜 믿어줘요....어떻게 하면 믿을 건데요?** (모자를 벗으며 상처자국을 보여주고) **이거, 이거 안보여요? 이거 봐요. 여기로 뇌를 바꿔 넣었다구요.**
경찰: (짜증내며) **아, 이 어르신 사람 미치게 만드네.** (억지로 끌어내며) **자꾸 그런 소리 하면** (검지를 머리에 대고 빙빙 돌리며)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 하세요…** (너무 머리 아픈지, 저 쪽에 있는 여경을 부르며) **야, 김순경 이 할아버지**

보내드려라.
희도: (속에서 열이 받치는지, 책상에 머리를 대고 꺽꺽 울기 시작한다.)
경찰: (강하게 어투로) **할아버지 자꾸 이러면 감빵 보냅니다!**

경찰, 김순경에게 어서 오라고 눈짓으로 재촉한다.
김순경, 다가와 울고 있는 희도를 일으켜 세운다.
희도, 나가기 싫지만 여경의 부축을 받으며 문을 나선다.

S#39 청솔금융 로비 (오후)

번쩍거리는 대리석 바닥에서 카메라 틸트업하면 회전문을 밀며 노식과 안비서 들어선다.
자신만만한 노식의 얼굴. 몇몇 경호원들과 정문데스크 여직원들이 예의를 갖춰 인사한다.

S#40 회장실 (오후)

<PDP화면>
엄숙한 장례식 장면. 주룩주룩 비가 내린다. 검은 차들의 행렬. 영정사진은 노식이다.
문상객들의 표정 별반 애도의 빛이 없다. 성대하지만 왠지 쓸쓸한 분위기다.
카메라 뒤로 빠지면 소파에 앉아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노식의 쓴 웃음. 이때 안비서 들어와 꾸벅 절한다.

안비서: 보고 계셨군요....
노식: (화면 보며) **자기 장례식을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묘해지는데?**
안비서: 회의실에 다 모여있습니다.
노식: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서며) **그래? 가보도록 하지.**

S#41 회의실. (오후)

넓고 세련된 실내. 회사의 규모가 풍긴다.
일자로 죽 뻗은 회의탁자에서 4~50대 중역들이 웅성거리고 있다.

임원1: 나이도 어리다면서요....
임원2: 회장님도 참…미국에 숨겨논 자식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
임원3: 줄곧 미국에 살았다잖아. 회사를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셨대.
임원4: 어쨌든 회사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모를 꺼 아니예요.
임원5: (눈치를 보며) **난 다음 회장 자리엔… 윤이사님이 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요?**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노식과 안비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사람들.
노식은 유유히 걸어와 회장 자리에 앉는다.
노식이 못마땅한 듯 의도적으로 다른 곳을 쳐다보는 윤이사. 거만한 표정이다.

노식: (사람들을 훑어보고) **아버님의 유언대로, 청솔금융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은 강인식 입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연신 담배만 피우는 윤이사. 노식 불쾌한 듯 말을 멈춘다.
안비서 윤이사의 담배를 뺏어 재떨이에 비벼 끈다. 당황하는 윤이사.

노식: (표정 고치며) **아버님을 대하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이사: (발끈) **자네. 금융업이 뭔지 알고는 있나?**

노식, 윤이사를 빤히 쳐다본다.

윤이사: (약간 비꼬는말투로) **자네가 회장이 되면 모든 주주들이 반발할거야.**
(임원들을 둘러보며) **안 그렇습니까?**
(여기저기서 동의의 뜻이 담긴 웅성거림이 인다.) **이봐. 젊은 친구, 회사는 구멍가게가 아니야. 미국에서 굴러먹다 와서는....시건방지게.... 강회장님 후임 자리는 당연히 주주들의 표결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하는 거네. 내말 알겠나? 못알아 들었으면 영어 영어로 해줄까?**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조용히 쳐다보는 희도, 담배를 꺼내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희도. 한 모금을 길게 들이킨다.

임원1: (놀라며, 작은 소리로 옆에 있는 임원2에게) **성냥으로 담배피는 것까지 지애비 하고 똑같네.**
임원2: (노식의 눈치를 보며, 작게) **그러게 말이야. 완전 지아버지 판박이야. 건방진놈!**
노식: (갑자기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일어서며) **조용히들 하세요! 회장님께선 회사 지분의 52%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지분을 제가 고스란히 물려받았다구요. 어차피 표결을 해도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제 의견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 있다는 거모르십니까?**
윤이사: (윤이사도 일어서며) **뭐야?**
노식: (명확하게) **아버님은 당신들에 대한 기밀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입가에 미소 지으며) **일종의 살생부라고 할 수 있죠. 회사에 엄청난 빚을 진 분들도 꽤 많더군요.**

순간 입다문 사람들의 긴장하는 표정. 이를 지켜보던 노식 갑자기 독사같은 표정을 지며

노식: (명령조로) **잘 들어! 사채란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물쩡 눈치나 보며 배채우던 것들은 앞으로 각오해야 할 걸? 회사에 눈독 드리며 개수작하는 것들도 가만두지 않아!** (웃으며 윤이사를 본다) **머리가 모자란 것들도 이만하면 알아들었겠지?**
(당황하는 윤이사를보며) **왜? 영어로 해줄까?**

어린놈이 막말을 해대자 질려버린 사람들의 표정.
하지만 기가 질려 감히 뭐라 말을 못한다. 압도된 분위기. 노식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며

노식: (표정바꾸며) **제가 그만 어르신들 앞에서 말실수를 했네요. 나이 어린 회장 밑에서 일하기가 좆같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만 하세요. 요즘 일자리 없어서 놀고먹는 인재들이 넘쳐 나거든요. 그럼 이만…**

문을 열고 나가는 노식. 아무 말도 못하는 임원들.
분한 표정으로 서 있는 윤이사 파르르 떤다.

S#42 복도 (저녁)

여유로운 표정으로 걷는 노식. 그 뒤를 무표정하게 따르는 안비서.

노식: (후련한듯) **어떤 가 내 연기가?**
안비서: 훌륭하셨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 같으셨습니….
노식: (말을 자르며) **젊은 사람 같다니. 내 몸을 봐. 난 이제 새 인생을 갖게 된 젊은이라고.**
안비서: (고개 숙이며) **아, 네. 죄송합니다.**
노식: (안비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아.** (약간 농담조로) **나보다 자네가 한참 윈데 뭐.**

민망해하는 안비서.

S#43 사무실 (오전)

고층 빌딩의 높은 사무실에서 도시의 번쩍이는 빌딩들을 바라보고 있는 노식.
반대편 건물의 옥상 시티비전에선 낮 광고가 번쩍이고 있다.
그 때, 핸드폰 소리가 들린다.
노식,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핸드폰을 보지만 전화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핸드폰 소리가 들린다. 노식, 소리가 나는 쪽을 찾다가 책상 서랍을 연다.
희도의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다. 받을까말까 망설이다 전화를 받는다.

노식: (낮은 톤으로) **여보세요?**
은아: (반가움과 놀람이 교차하며) **희도씨?** (울먹이며) **어떻게 된 거야? 그 동안 얼마나 많이 전화했는데, 도대체 어디 있었어?**
노식: (당황해서 머뭇거리며)**….어, 일이 좀….**
은아: (애원하듯) **지금어디야 희도씨…..아버지 돈 구하려 다닌 거야?**
노식: (무슨말을 하는지 전혀알지 못한듯) **어… 어…**
은아: 그렇게 많은 돈을 자기가 어디서 구해? 아빠가 약속한 날이 내일 인데… 난 희도씨가 그 돈 안구해도 되니까 빨리와 희도씨. 난 희도씨만 있으면 돼…
노식: (어쩔줄 몰라) **저기, 그게….말이야….**

은아: (안심시키듯)**나 다 알아. 희도씨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맘아프다느거 그치만 너무 걱정마. 어떻게든 되겠지....**(소곤거리며)**희도씨, 아빠 들어오셨나봐 이따 다시 걸게. 전화... 받을 거지?**
노식: 그, 그래....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는 노식.
뭔가를 생각하다가, 인터폰을 든다.

안비서:(필터 소리) **예 회장님 ...**
노식: (골똘히 생각하다) **민희도 여자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봐.**
안비서: (필터 소리) **알겠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를 내려다보는 노식.

S#44 희도의 옥탑방 앞 (저녁)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희도. 숨이 가쁜지 멈춰 선다. 다시 오르는 힘든 몸짓.
문 앞에서 주머니를 뒤적여 본다. 아무것도 없다. 옆에 있는 고무다라를 들어본다.
열쇠가 없다.
방문 고리를 돌려보지만 잠겼다. 진이 빠져 문 앞에 주저앉는 희도.
그 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꼬마 김치를 하나 사들고 계단을 올라오는 태석.
문 앞에 앉아 있는 희도를 보고 주춤한다.

태석: (깜짝 놀라) **아 씨발, 깜짝야. 할아버지 누구세요? 남의 집 앞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희도: (고개를 들어 태석을 보고) **태석이 삼촌, 나야. 희도야...**
태석: (벙쩐 표정)…

희도, 태석을 망연자실 본다. 담배를 꺼내무는 태석 눈알을 굴리며 생각한다.

태석: (이제야 알겠다는) **아... 할아버지, 하우스물새가 보냈죠?**
(갑자기) **아 씨발, 인제 노인네까지 동원을 해서 사람을 괴롭히나…**
희도: (눈에 눈물이 맺히며) **삼촌, 나야 희도…**

태석, 황당하지만 곧 안심하는 표정.

태석: (눈치보며)**....할아버지, 그렇게 눈물연기 안하셔도 되요. 물새가 보낸 거 다 알아요.**

태석, 희도를 데리고 방안으로 들어간다.

S#45 방 안 (저녁)

태석, 컵라면을 희도 앞으로 옮긴다.

희도: 삼촌....

태석: (난처한지) **자꾸 삼촌~, 삼촌~ 하니까... 제가 할말이 없잖아요. 제가 도박에 인생은 걸었어도 어른 모실 줄은 알거든요. 삼촌~삼촌~하지 마시고,** (컵라면 뚜껑을 열며) **이거 제가 먹으려고 한건데, 이 김치랑 드시고 얼른 가세요. 그리고 물새한테 가서 법대로 하란다고 전해주세요. 알아죠 할아버지? 거 기력도 많이 없어 보이시는데...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얼른 드시고 가세요.**

희도: (답답한지) **삼촌, 5년 전에 큰 아버지 돌아 가셨을 때... 삼촌 도박한다고 장례식에도 늦게 왔잖아요. 그리고 삼촌 결혼해서 한달 만에 이혼하고 개털되서 우리 집에 왔잖아.**

태석: (갸웃하며)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 ?**

희도: (또박또박) **민.태.석! 삼촌 이름이잖아.**

태석: (눈울홀기며) **이름은 어디서 알아 가지고.....**
알았으니까... 라면 퍼지기전에 얼른 드시고 가세요. 좀 있으면 어두워져요 할아버지.

희도: (답답해 미치겠다는 투로) **삼촌, 제발 믿어줘 나 진짜 희도야. 내 얘기 좀 들어봐.**

태석: (태석도 답답해 미치겠다는듯) **할아버지! 혼자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다 알아 들었으니까 거 삼촌~ 삼촌~ 좀 하지 마세요!**

희도: (이제거의 애원쪼다) **삼촌, 믿어줘 나 희도야.**

태석: (참는것도 한계가 있다는 듯 한숨 쉬며) **아 이 할아버지 때문에 정말 미치겠네.**
(일어서서 문쪽으로 가며) **이할아버지 물새보다도 더하네 더해....**

태석, 한숨 쉬고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어디로 전화를 건다.
열린 문틈으로 보면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희도.
전화를 끊은 태석이 방안으로 들어온다. 희도가 컵라면을 먹지 않자, 태석은 자기 앞으로 컵라면을 냉큼 가져와 후르르 소리까지 내 먹으며 텔레비전 채널을 돌린다.
(시간경과)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태석, 희도의 눈치를 보며 일어나 문을 연다.
문밖에 경찰 두 명이 서 있다. **씬#36**의 여경과 경찰이다.

S#46 옥탑방 문 앞 (저녁)

여경과 경찰이 희도를 끌어내고 희도는 온 힘을 다해 저항한다.
기력이 없는지 휘청거리는 희도. 바닥에 턱하고 주저앉는다.

경찰: (희도 보고) **아, 이 할아버지 하루 종일 사람 진짜 바쁘게 만드시네.** (태석을 가리키며) **할아버지, 저 사람 알아요?**

희도: (고개 끄덕이며) **예. 삼촌 이예요.**

태석: (기가 막힌 듯) **전 할아버지 같은 조카 둔 적 없어요. 저는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친척들도 없고, 새파란 조카 한명이 유일한 피붙이라구요. 그 놈도 사실 완벽하게 우리 핏줄은 아니지만….**

경찰: (희도에게) **할아버지,**(태석을 가르키며) **이 아저씨가 할아버지 삼촌이 아니라잖아요. 자꾸이러시면 저 진짜 화냅니다.**

희도: (태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삼촌, 그 조카가 나라고.** (이제 지쳐버린 태석) **삼촌,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부주들어 온 돈 안준다고 한강 다리 위에서 죽는다고 난리쳤지. 그래서 내가 한강다리 위에 300만원 갖고 갔잖아? 기억 안나? 그리고 그 돈 삼촌이 한 달 후에 열 배로 갚는다고 해 놓고 아직도 안 갚았잖아?**

태석: 아... 이 할아버지, 5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그것도 한강 다리위에서 돈받은 것을...참 이상한걸 기억하시는 할아버지네.....

여경:(안되겠다는듯) **선배님, 경찰서로 모시고 가야할 것 같은데요? 이 할아버지 수준급인거 인것같은데.....**

희도:(눈을부릅뜨고) **삼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락실에서 돈 뺏기고 오니까.. 그 돈 찾아준다고 오락실 가서 깡패랑 싸우다가 엄청 맞은 적 있지? 그러면서 삼촌이 이렇게 앞으로는 애들한테 돈 뺐겨도 삼촌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기억 안나?**

태석: 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자꾸 떠드세요....

희도: (다급히) **나 수능전날 삼촌이 소판 돈 훔쳐서 놀음하다가 다 날려서 큰어머니 쓰러지셨잖아? 생각 안나?**

태석: (돌아보며) **할아버지 전 전혀 생각 안나는데요?**

경찰: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경찰, 어이가 없는 듯 희도에게 다가간다.) **할아버지 주민등록번호 좀 불러보세요.**

희도: (잠시 머리를 굴린다) **어... 800309.. ... 327**

태석: 할아버지 80이 아니고 40이나 50이겠죠? 제가 66인데...

경찰: (열받는 듯, 태석을 향해) **아저씨도 이젠 좀 가만있어 봐요.**

움찔이는 태석.

경찰, 희도가 부르는 주민등록번호를 무전기에 입을 대고 따라 불러준다.

무전기에서 특유의 기계음 섞인 소리가 나며.

경찰: (놀라며) **어? 80년생... 27살 민희도? 할아버지 이름이 뭐라구요?**

희도: (표정이 밝아지며, 또박또박) **민.희.도.요!**

태석: (신기한 듯 희도를 보면서) **우와 이 할아버지 암기력 대단하시네?** (경찰을 보며 얄밉게) **경찰 아저씨 이 할아버지 전과 있어요?**

경찰: (이젠 경찰도 미치겠다는 듯 한숨 쉬며) **아니요. 이 주민번호로는 전과 없는데...**

태석: (희도의 늙은 몸을 아래위로 쭉 훑어보며) **할아버지 ...** (다시 이해가 안간다는 듯) **왜 남의 조카 주민번호는 왜우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 도용죄로 잡혀가요..**

경찰: (이젠 경찰도 혼란스러운 듯) **음..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할아버지. 같은 이름이 두 개 일리는 없고...**

희도, 어느 새 눈물이 고인 눈으로 태석을 바라보며

희도: .. 삼촌, 나 정말 희도야.

희도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태석, 뭔가를 조금 느낀 듯.

태석: (희도를 데리고가는 경찰을 향해) **저, 잠깐만요.** (경찰에게 다가가는 태석)**제가 아는 분이 불쌍한 노인분들 지낼 수 있도록 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거기다 제가 모셔드리면 어떨까요? 이 할아버지 머리만 조금 이상하지 죄짓고 살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

경찰: (갑자기, 귀찮은지)**그래요?** (경찰, 여경을 보는데 살짝 그렇게 하자는 사인을 주고 받는다) **뭐, 그렇게 하시든지요. 신고한 분이 그 쪽이니 두분이서 알아서들 하세요.**

태석: (희도를 부축하고 얼른 경찰들에게 인사하며)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경: (경찰도 어이가 없다는듯) **잘됐다. 선배. 저런 할아버지들 모셔가면 골치잖아. 안 그래요?** (경찰도 고개를 끄떡인다.)

경찰: (돌아서 가며, 형식적으로) **그럼,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연락하세요?**

태석: (안으로 들어가며) **네... 네.**

S#47 방 안 (저녁)

희도와 태석이 마주보고 앉아 있다.
태석은 희도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담배만 뻐금뻐금...재떨이에 수북한 담배 꽁초들.

희도: (어렵게 입을 열어)**...믿기 힘들다는 거 알아.**

태석: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고개를 흔들며) **아니 가능한 건~가~요? 제가 신장은 떼어봤지만 몸이 바뀐 다는 건 영...**

희도:(체념하듯) **나도 모르겠어 삼촌 . 어쨌든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

태석:(아직도 긴가민가 하며) **이거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믿자니 말이 안되고, 안 믿자니 몇 년 전에 도망간 마누라 이름까지 다 알고 있으니 ...참 환장할 노릇이네...**

희도 아무말 없이 태석을 바라본다. 분해서 이글거리는 눈빛. 눈물까지 글썽인다.
움찔하는 태석. 희도 태석의 몸을 덥석 끌어안으며

희도: (절박하게) **삼촌, 나 좀 도와줘. 나 내 몸 찾아야 돼.**

태석: (심각하게) **그게 진짜라면 꼭 찾아야죠 할아버지..아니... 찾아..야지. 아, 이거 노인네 보고 반말 할래니까 진짜 힘드네... 어쨌거나, 찾아야지... 근데 어떻게 찾아?**

희도: (한숨) **그게 문제에요 삼촌.**

태석: (갑지기 뭔가 생각나듯) **나 볼 일 좀 보고 올 테니까 그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있으세..... 있어.**

희도: 어디 가는데? 또 물새네 하우스 가는 거야?

태석: (신발신으며 희도를 보고) **귀신이네.. 진짜 희도 같기는 한데...에이 모르겠다. 암튼 한탕 하길 빌어 줘...**

태석, 나가고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희도.

S#48 응접실 (저녁)

김박사가 노식에게 주사를 놓는다. 따가운지 눈을 가늘게 뜨는 노식.
서서히 줄어드는 주사액. 신경질적으로 움찔하는 노식의 눈.

김박사: (의사가 환자에게 말하듯) **하루에 한번은 꼭 면역 억제제를 맞으셔야 합니다.**
아무말이 없는 노식. 묵묵히 주사기와 약병을 챙기는 김박사. 이때 창하가 들어온다.

노식: (김박사에게 차갑게) **됐어, 나가봐.**
(창하를 반기며) **와주었구만. 평생 날 안보는 줄 알았어...**
창하: (불편한 얼굴로) **자꾸 사람을 보내니 성가셔서 왔네만, 달라진 자네를 대하는 게 난 불편하네.**
노식: (창하를 달래듯) **그러지 말게. 내가 자네말고 친구가 또 누가있나? 자네 없으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겠어?**

창하 헛기침만 해댄다. 아직도 노여운 듯하다. 노식 다정스레 창하의 손을 부여잡고

노식:(아주부드럽게) **내가 자네랑 내기한지도 오래됐는데 오늘 색다른 내기 한번 해 보는 건 어떻겠나?**
창하: (건성으로) **어떤 내기 말인가?** (퉁명스럽게) **왜 나랑 몸이라도 봐꿀 텐가?**

허허 웃던 노식, 고개짓을 하면 안비서 그들 앞쪽 벽의 커튼을 걷는다.
유리벽으로 된 공간에는 야한 차림의 여자들이 전시품처럼 앉아 있다. 경악하는 창하.

창하: (어이가 없다는 듯 놀래며) **이, 이게 다 뭔가?**
노식: (아주 흥미로운듯) **저것들 중에 처녀가 몇 명인지 한번 맞춰 보자구.**
(음흉한 눈빛으로) **결과는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창하: (노여워하며) **자네 취미가 형편없어 졌군. 젊은 몸을 가진 자네나 실컷 즐기게.**
노식: (당황하여) **미,미안하네. 내가 자네 생각을 못했네....정말 미안해....**
창하: (벌떡 일어나) **내 충고 하나 할까?** (비웃으며) **자네 지금까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 만나 본 적 있나? 늘 돈으로 여자를 사니 이혼을 밥먹듯 하는 거네.**
내 장담하지....자네는 죽는 날까지 외로운 사람일거라고....

홱 나가버리는 창하

노식: (푸념하듯) **그래, 난, 지금까진 돈으로 여자를 샀지.** (표정이 싸하게 바뀌며) **하지만 이번엔 달라. 젊은 육체가 있으니 여자의 마음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S#49 희도 집 (밤)

방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 하는 희도. 심하게 기침을 한다.
희도의 바지 주머니에서 알약 통이 하나 굴러 떨어진다.
알약 통을 집어 들면 쪽지 하나가 고무줄로 묶여 있다.
희도 펴보면 **'힘들 때 한 알씩 드세요.'** 라고 씌여 있다.
희도 알약 통을 집어 던진다. 바닥에 나뒹구는 알약.
고통이 심해져 견디기 힘든 희도.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떨어진 알약 한 알을 집어 삼킨다.
잠시 후 진정된 표정. 이어 희도의 눈에 들어온 은아의 누드화. 이내 눈물이 흐른다.

S#50 (회상) 희도 집 (밤)

얇은 이불로 몸을 감싸고 희도 앞에 선 은아.

은아: 창피해....
희도: (미소) **나한테 창피한게 뭐 있어?**
은아: 그럼 이쁘게 그려줘야 돼.

은아의 손에서 떨어지는 얇은 이불. 희도의 손을 따라 완성 되어 가는 은아의 그림.

은아: 멀었어? 힘들어 죽겠다.
희도: 다 됐다.
은아: 어디봐.

은아 얇은 이불로 몸을 감싸고 희도곁으로 다가와 그린 그림을 본다.

은아: 에이, 내가 이렇게 빈약해? 내가 얼마나 글래먼데? 봐.

이불로 감싼 자신의 몸을 희도에게 드러낸다. 희도 그런 은아를 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힌다.
둘이 감미로운 키스를 주고 받고 수줍게 사랑을 나눈다. 그 곁에 놓인 은아의 누드화 클로즈업.

S#51 희도 집 (밤)

자신이 그린 은아의 그림을 매만지며 가슴을 쥐어 뜯는 희도. 페이드 아웃.

S#52 노식의 침실 (밤)

거울로 반사되는 이미지. 벌거벗은 노식 커다란 침대 위에서 두 여자와 어지러운 섹스를 한다.
(시간경과)
노식의 격렬한 몸짓. 나가떨어지는 여자 1.

노식 여자 2를 뒤로 돌려 더욱 거세게 섹스에 몰입한다. 허리가 활처럼 휘며 고꾸라지는 여자 2.
가쁜 숨을 토하며 여자를 팽겨치는 노식.
여자 둘이 노식에게 애교스레 앵기나 밀치는 노식. 머쓱한 여자들.
침대에 걸터앉은 노식 그 표정이 왠지 쓸쓸해 보인다.

S#53 노식의 사무실 (저녁)

집기들이 모두 고급스럽고, 화려하다.
머리를 고급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도시를 쭉 내려다본다. 마치, 도시의 모든 것들이 노식의 발아래에 있는 듯 그의 표정이 아주 자신 만만하다.
노식,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뒤로 하고 의자를 돌려 결재 서류에 사인을 하며 일에 집중한다. 잠시 후. 안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와 공손히 예의를 표한다.

안비서: (꾸벅 인사를 하고) **회장님, 민희도 애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S#54 차안 (저녁)

뒷자석에 탄 노식은 무관심하게 창밖을 쳐다보고 있고 안비서 운전하며 노식에게 이야기한다.

안비서: 민희도 여자의 아버지가 공장이 어려워 사채를 끌어다 쓴 모양입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사채업자들이 민희도 여자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가 시한이었다고 합니다.

안비서 백미러로 노식을 보면 노식 희도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안비서: 두사람은 오래된 연인 사이인데... 여자쪽 부모의 반대로 결혼을 못했구요. 그 날.... 여자의 아버지 빚 때문에 내기에 응한 것 같습니다

S#55 꽃집 (낮)

양아치들에 둘러 쌓여 있는 은아. 겁에 질린 표정이다.
김사장 은아 곁으로 다가와 은아의 귓볼에 바람을 불면 은아 몸서리친다.

김사장: 너도 나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허냐? 얼굴도 이쁘게 생겼는데 나랑 사랑이나 헐까?

낄낄거리는 양아치들.
김사장 은아의 치맛속으로 손을 쑤욱 집어넣고 은아 몸서리를 치며 옆으로 비켜난다.

김사장: 아따 고년, 뽕긴게 더 쏠리는구만.

기다리던 양아치들이 은아의 옷을 벗기려고 한다. 은아 죽을 힘을 다해 버텨보지만 당해 낼 재간이 없다.
은아의 블라우스가 풀어져 속살이 다 보인다. 사장 주섬주섬 바지춤을 끄르며 가래를 뱉는다.
겁에 질린 은아 심하게 떤다.

김사장:(양아치들을보며) **야! 너덜 나가서 당구한겜 치고 오그라.**

양아치들 설렁거리며 문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린다. 안비서와 노식이 서있다.

양아치1: 너 또 와불었냐? (안비서보며) **인자 친구까지 데불고 화부럿네.**

당당한 노식 김사장 앞으로 다가온다. 김사장 어디서 희도를 어디서 많이본 듯한지 노식의 얼굴을 훑어본다.
놀라면서도 희도를 반기는 은아의 얼굴. 양아치들 움직이려는데 안비서가 막아선다.

김사장: (이제야 누군지 알겠다는듯) **아, 아…** (새끼손가락 보이며) **이거 왔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근데 복권에라도 당첨되셨나? 신수가 아주 훤해지셨어.** (희도를 아래위로 흩으며) **이렇코롬 입으니께 몰라보것 구먼**
노식: (무시하며... 점잖게) **그 여자 풀어줘.**
김사장: (비웃으며) **뭐라고야?**
노식:(조금 강한 어투로) **풀어줘라. 좋은말 할 때.**
사장:(웃긴다는듯) **으메?** (양아치들 보며) **야가 풀어댈랜다...**(희도보며) **이놈 개또라이 아니여?**
순간 양아치들 희도에게 달려드는데
안비서 달려드는 양아치들을 가볍게 밀치며 테이블에 007가방을 놓고 가방을 연다.
만원짜리가 빽빽하게 들어있다.
덤비려다 놀라는 양아치들. 노식 양복 주머니에서 명함 한장을 꺼내 탁자에 던진다.
양아치1 건들대며 명함을 들고 본다.

김사장: 왜 그려? 대통령이라도 되신다냐?

양아치1 명함을 김사장에게 건넨다. 눈을 내리깔며 명함을 받는 김사장.

김사장: 청솔금융 회장 강인식....(생각하다) **청...솔금융이라고라? 긍께 그, 청솔금융이요?**

김사장 긴장해 고개를 돌리면 예사롭지 않은 안비서의 표정. 위압감이 흐른다.
탁자 위에서 빛을 발하는 돈다발들.

노식:(날카롭게) **너희 같은 놈들은, 말 한마디로 매장시킬 수도 있어.**
사장: (비굴하게 돌변) **아이구, 회장님 몰라뵈었습니다요. 참말로 죽을 죄를 지어분졌습니다.**
(양아치들에게) **앗따 뭐하냐? 어여 큰회장님께 큰절 올리지들 않구.**

불안한 얼굴의 김사장 노식 발앞에 넙죽 절하면 멋모르는 양아치들 잽싸게 따라한다.
바닥에 일렬로 절하는 양아치들 우스꽝스럽다. 노식 이를 경멸 어린 눈으로 훑다가

노식: (피식거리며) **됐다.** (안비서에게) **볼일 끝났으니 그만 가자.**

진땀 흘리며 눈치보는 김사장 벌떡 일어나 은아쪽을 향해

김사장: (꾸벅 인사하며) **아이고 사모님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진즉에 말씀을 하시지 .....한번만 용서해 주시면 진짜로 착하게 살꺼구먼요…**(007가방을 닫으며) **이런 건 왜 가지고 오셨대요? 저희 사이에 뭘…**

한껏 더 비굴해진 김사장 공손히 가방을 안비서에게 건내려는데

노식: (빈정거리듯) **그거 너 가져라.**
김사장: (긴장해서) **아이고 회장님. 그 동안 돌봐주신 게 어딘디 제가 감히 이돈을....**
노식: (번뜩하며) **가지라면 가져.**

김사장 쫄아서 눈도 못맞추고 돈가방을 제 품에 안는다.
비굴하게 표정관리하는 김사장. 불안한지 눈알을 연신 굴려댄다.
은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다. 옷을 급하게 여미며 노식 곁으로 다가온다.
노식 뒤돌아 나오고 은아와 안비서도 뒤를 따라 나온다.
뒤에 대고 허리를 90도로 꺽은 김사장과 양아치들.
노식일행 사라지면 양아치 1 김사장에게 소근거린다.

양아치1:(어이가 없다는듯) 형님! 시방 이것이 무슨 꼴이랑가요?
김사장: (비굴한 표정 거두며) **넌 한글도 못읽냐 ? 씨벌놈아! 까닥하면 야산에 생매장 당할 뻔했어.**

S#56 길 (낮)

해진 블라우스를 손으로 움켜주고 있는 은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는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떨구고 있다.
노식 어쩔 줄 몰라 바라보고 있다가 자신의 양복 상의를 벗어 은아의 어깨에 걸쳐준다.
무심히 뒤돌아 가려는 노식을 보고 이에 당황한 은아.

은아: (훌쩍거리며) **회도씨...**

노식 툭 멈춰 선다.

은아: (울먹이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다가 나혼자 두고 가는 거야 ?**

노식: (망설이다가 차 문을 열고 은아를 보며) **그럼.... 같이 가든지.**

어리둥절한 은아 일단 차에 탄다.

S#57 차 안 (낮)

뒷 자석에서 은아와 노식 말없이 앉아 있다. 백미러를 통해 이들을 보는 안비서.

은아: (침묵을 깨며) **어떻게 된 거야 희도씨 ?**
노식: (멈짓거리며)....**그러니깐.... 그게, 그 동안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은아: (걱정스레) **무슨 사정?**
노식: (당황하며)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어.**
은아: (애절하게) **희도씨…**
노식: (약간 오버해서 단호하게)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으로 우린 만날 수 없단 거야.**
은아: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야.**(이해가 안된다는듯) **왜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거야?**
노식: (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긴말 하지 말자.**
은아: (따지듯이) **희도씨! 돈 좀 생겼다고 사람이 변한거야? 한 달 동안 통 연락도 안되고 갑자기 딴 사람돼서 나타나서 이젠 만나지 말자고? 난 그렇게 못해.**
노식: (냉정히) **난 이제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아냐.**
은아: (울컥해서) **왜? 부자가 돼서? 그래서 나 같은 앤 이제 필요 없는 거야?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옛날의 희도씨가 좋아. 돈 없고 가난해도, 나한테 아무것도 못해줘도, 그냥 좋았어.**
노식: (냉정하게) **그만해. 나 바빠.**
은아: (울컥) **알았어. 나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희도씨 라면 싫어.** (안비서를 보고) **차, 세워 주세요.**

차 서면 뒷자석문을 밀치며 은아가 내린다. 눈물을 훔치며 뛰어가는 은아.
창문을 내리고 은아를 쳐다보는 노식.

S#58 희도 옥탑방 (낮)

자리에서 일어나는 희도. 고통스러운지 가슴과 머리를 쥐고 있다. 옆에 놓인 약봉지를 뜯어 약을 먹는다. 코에 손을 가져 가면 피가 묻어 나온다.
이내 진정되면, 일어나 책상 앞에 가 앉는다. 그때 눈에 띄는 명암 한 장. 혜린의 명함이다.
희도 무슨 생각이 났는지 명함을 손에 꼭 쥐고 일어난다. 그 때 초췌한 몰골의 태석이 들어온다.

희도: (태석을 반기며)**이제와?**
태석: (깜짝 놀라며) **아, 씨발 또 놀랬잖아. 근데 너 어디 가냐?**
희도:(태석의 손을 잡으며) **삼촌, 나랑 같이 좀 가줘.**
태석: 어딜?

희도: 내가 내기하던 날, 나 데리러 왔던 여자, (명함 보여준다) **그 여자 명함이야.**
태석: (건성건성) **찾아가서 뭘 어쩌려구? 그 여자도 결정적인 순간엔 없었다며?**
희도:(절실하게)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지....**
태석:(어깨를 주무르며) **가고 싶음 혼자가라. 난 피곤해서 자야겠다.**
희도: 삼촌, 이런 몸으로 어떻게 혼자가?
태석: 나 참 진짜 미치겠네. (희도를 빤히 보며) **근데 할아버지 진짜 민희도 맞는 거예요?**
희도: 삼촌!!!
태석: (자신의 윗옷을 들어 상처 난 부위를 들이대며) **그럼 이 상처 뭔지 알아?맞쳐봐?**
희도:(그런 삼촌이 안됐다는듯) **뭐긴 뭐야. 도박 빚 갚느냐고 신장 떼서 팔은 거 아냐…**
태석: (놀라며) **진짜 맞긴 맞구나…**

S#59 길 (낮)

태석 앞서 걸어가고 있고 희도 힘든 걸음으로 뒤따라오고 있다.

태석: (희도를 돌아보고) **얌마, 뭐하냐? 빨리 좀 와라.(한숨쉬며) 나도 느리지만 너도참 느리다 희도야...**
희도:(힘들게 숨을 내쉬며) **좀 천천히 가. 힘들어 죽겠어.**
태석: 힘들긴 뭐가 힘들다 그래.나도 이렇게 가는데...(희도를보며 불쌍하다는듯) **서둘러 가야될 꺼 아니냐?**
희도: (힘이들어서 얼굴이 찔그려지며) **난 늙었잖아 삼촌 ....**

둘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던 운동복 차림의 중년남. 태석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뒤통수를 퍽 친다.

태석: (놀라) **아 씨발, 뭐예요?**
중년남: 어데 이런 호로자슥 이 다있노?
태석:(태석 성질이난 듯) **뭐요?**

덤비려던 태석 순간 중년남의 앞가슴에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특공무술 정립체육관. 확 쪼는 태석 포기하고 그저 한숨만 쉰다.

중년남:(타이르듯)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자슥 !**
태석: (답답한듯) **아저씨! 뭘 오해하셨나 본데요 쟨 내 조카예요.**
중년남: (뒤통수를 한대 더 치면서) **이 자슥이 아직도 정신 몬차리고 헛소리 삑삑하네.**

맞은 머리를 만지며 억울하게 서 있는 태석. 중년남 미소를 지으며 희도에게 다가오는데 슬쩍 눈인사를 건네고 가는 아저씨.
태석 희도에게 눈을 흘기고 희도 미안해서 태석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S#60 갤러리 (낮)

갤러리에 들어선 희도와 태석 두리번두리번 거린다.
한쪽에서 손님에게 그림을 설명하는 혜린.
희도 반가운 표정으로 혜린에게 다가간다. 태석 아무 그림이나 스윽 만져본다.

혜린:(아주 상냥하게) **사모님, 이그림 아주 귀한 작품이랍니다. 보세요. 터치부터 다르잖아요. 소장하실만 하니까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품이 확실하고요.**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손님.

희도: (혜린에게) **저....**

혜린 돌아보면 노식의 모습에 놀란다.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며

혜린: (손님에게) **사모님 잠시만요.** (손님으로부터 몇 발자국 물러나) **여긴 웬일 이예요?**
희도: (머뭇머뭇) **저기 그게…**
혜린:(냉정하게) **설마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닐테구. 왜 갤러리 주고 나니까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루 빼앗으시겠다....?**

하며 희도를 위아래로 훑는 혜린.
싸구려 청바지에 티셔츠 게다가 모자까지 걸친 옷차림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지

혜린: (코 웃음치며) **옷차림은 또 이게 뭐예요?**

희도, 민망한지 제 모습을 한번 내려보고

희도:(다소곳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 좀 하죠.**
혜린:(이상하다는듯) **갑자기 말투는 또 왜 그래요?**
희도: (태석에게 이리 오라는 손짓을 하며) **삼촌.**
어거정 어거정 걸어오는 태석.

S#61 혜린의 사무실 (낮)

혜린이 상석에 앉아 있고 희도와 태석이 옆에 앉아 있다.
혜린의 비서가 차를 내려놓고 나간다.
방정맞게 두리번대는 태석.

희도: ....저는 강노식이 아닙니다.
혜린: (어이없어 크게 웃다가) **강노식이 아니면 그럼 누군데요?**
희도: 난 민희도라구요.

혜린: (표정을 가다듬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희도:(다시악몽이 기억나는듯) **전...몸을 빼앗겼어요. 너만 남기구 모조리....**

희도 모자를 벗으면 선명한 수술자국 드러난다.
희도 흔들림 없이 혜린을 바라본다.
희도의 진심이 담긴 눈동자. 일순 당황하는 혜린.

혜린: ....
태석: (나서며) **이 친구 민희도가 맞아요. 저두 처음엔 못 믿었습니다.**
혜린: (단호하게)**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주세요. 우리 관계 이미 정리 된거 잖아요.**
희도: (호소하듯) **전 강노식이 나이라 그날 밤 사모님께서 찾아왔던 민희도라구요!**
혜린: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나가주세요. 제발.** (인터폰을 누르며) **손님들 모시세요.**

건장한 경비가 들어와 희도와 태석을 이끈다. 희도 뿌리치며 혜린에게

희도: (쳐다보며 또박또박) **죽음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은 더욱 섬세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하여 죽음이 삶에 대해서 우위를 과시하려는 듯이…**

다른 곳을 응시하는 혜린. 그러나 굳어지는 표정. 희도와 태석은 끌려가고 문이 닫힌다.
심란해 지는 혜린.

S#62 길 (낮)

태석과 함께 힘없이 걸어가는 희도.

태석:(다그치듯) **거봐. 소용없을 거라고 했잖아. 아 잠이나 자두는건데....**

희도, 힘없이 고개를 떨군 채 걸어간다.
그 때, 어디선가 한 여자가 꽃을 들고 뛰어가다가 희도와 부딪힌다.
희도, 힘이 없는지 맥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은아:(소리) **어머, 할아버지 죄송해요.**

누군가 손을 내미는데, 희도 그 손을 붙잡고 고개를 든다. 은아다.
놀람과 당황, 그리움이 뒤섞여 어쩔 줄 모르는 희도.
태석 그런 희도를 보고 다가와 희도를 일으키며 은아에게

태석: (살짝 웃으며) 괜찮아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가보세요.
은아: (공손히)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제가 좀 덜렁대서…**(웃으며) **죄송해요...할아버지.**

희도, 은아의 모습에 참지 못하고 눈물을 떨군다.
그런 희도의 모습에 당황하는 은아와 태석.

태석: (당황하여 은아에게 희도를 가르키며) **이분이 원래 눈물이 좀 많아요 별일 아니예요. 어서 가보세요 아가씨.**

은아 머뭇머뭇 거리다 인사를 하고 간다. 희도 은아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본다.
은아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인다.

태석 :(짜증이 나는듯) **미치겠네. 너 챙피하게 왜 울고 지랄이야…나 참…**

희도의 귀에 멀게만 들리는 태석의 목소리.

S#63 노식의 침실 (밤)

어두운 조명. 물결치는 침대의 실크커버. 젊은 여자와 뒹굴고 있는 노식
급격하게 피스톤질을 하다 절정이 온다. 노식의 등에 팔을 휘감는 여자.
신경질적으로 여자를 떨쳐내는 노식. 여자 다시 한번 노식에게 교태를 부리지만 노식 홱 뿌리친다.

노식: (무표정으로) **그만 나가봐.**
여자: (아양떨며) **왜 그래 오빠....**
노식: (갑자기 화내며) **그만 꺼지라구!**

노식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바닥에 던진다. 여자 주섬주섬 수표를 주우며

여자: (혼잣말) **재수없는 새끼.** (약간 들어 라는듯)**나도 빨리 가고싶다.....**

여자가 옷을 들고 나가자 담배를 무는노식 성냥을켜서 불을 붙인다. 쓸쓸한 표정으로 침대에 눕는다. <인서트> 청초한 은아의 얼굴 노식 놀라 일어나 고개를 흔든다.

S#64 희도 옥탑 방 (밤)

조그만 창으로 서늘한 달빛이 희미하게 비춘다.
희도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태석은 화투패를 맞추고 있다.
이때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태석 일어나서 문을 열면 혜린이 서 있다. 희도 놀란다. 혜린 들어와 앉는다.

혜린: (진심이 묻어나는 말투로.....) **믿기는 힘들었지만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희도: (표정이 밝아지며)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분이 혜린씨 밖에 없어요.**
혜린: (차갑게)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되죠?**

희도, 말문이 막혀버린다.

태석: (희도의 대변인 인냥) **이 아줌마 말 진짜 재미없게 하시네. 그 영감탱이 부자라면서요? 눈딱감고 도와주고 댁도 한몫 챙기면 되잖아요. 답 딱나오는데...왜그러실까.**
혜린: (비웃으며) **돈이라면 나도 있을 만큼 있어요.**
태석: (살작 꼬리내리며) **그건 저도알지요. 근데 돈이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혜린: (인상을 찡그린다)
태석: 어차피 당신도 막판에 왕창 피박 썼다며?
희도 : (말을 자르며 큰소리로) **삼촌!**
태석 : (희도의소리에 놀라돌아 보며) **야!소리는 왜지르냐 너한테 들은대로 이야기하는데...**
희도: (혜린에게) **죄송해요 삼촌이좀....**(무표정한 혜린을 보며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 몸은 뺐겼지만 전 강노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잘되면 당신은 그 사람의 모든 부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게 된대도 얼마간의 시간만 낭비한 거죠. 잃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태석: (입이 근지러운지 혜린에게 다시 나서며) **빨리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이삼은 육이죠.**
혜린: (태석의 말은 무시한채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다) **....**

S#65 노식의 침실(밤)

거의 다 비운 와인병과 와인잔이 침대 옆의 스탠드 테이블 옆에 놓여 있다.
희도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긴 듯한 노식, 그러다가 희도가 전화기에 찍어 논 은아의 사진을 천천히 한 장씩 넘겨 본다. - (페이드 아웃)

S#66 차안+길 (낮) - (페이드 인)

노식의 차가 청담동을 스치고 있다. , 창 밖을 내다 보다 은아를 발견하는 노식.
꽃바구니를 들고 손에 쥔 종이쪽지를 보며 여기저기 둘러보는 은아.

노식: (안비서에게) **차 세워.**

안비서 차를 정지시키면 노식 내려 은아에게 간다.

노식: (조금은 다정하게) **어디가?**
은아: (놀람과 반가움 그러나 이내 냉정을 되찾으며) **무슨 상관이야?**

노식 은아의 손에 들린 종이쪽지를 가로챈다. 은아 당황하지만 아무 말 않는다.

노식:(쪽지를보며) **근처구만....**

은아의 의중은 아랑곳없이 앞장서는 노식. 은아 얼떨결에 뒤따른다.

은아: (퉁명스럽게) **평소엔 갔던 길도 모르면서 사람이 변하니까 이런 것도 변하는 거야?**

아무 말 않고 걷는 노식. 그 뒤를 따르는 노식의 차.
행사준비로 분주한 레스토랑입구에 서는 노식.

노식:(건물을보며) **여기군**
은아: (희도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나. 갈께....**

차에 타려던 노식 물끄러미 은아의 뒷모습을 본다. 축쳐져 힘없이 걷는 안쓰러운 은아.

S#67 레스토랑 안 (낮)

고급레스토랑. 손님 맞을 준비로 부산한데 입구에서 은아가 두리번거린다.
지배인으로 보이는 얄미운 인상의 30대 남자 온다.

은아:(상냥하게) **안녕하세요? 부탁하신 꽃 가져왔어요.**
지배인:(꽃을보며 인상이 바뀐다) **이거 뭐야? 지금 장난하나?**
은아: (조금 당황하며) **주문하신대로 만들어 온건 데요?**
지배인:(아주 신경질적 으로) **아휴, 진짜 짜증나네... 그 손님 얼마나 까다로운데… 미치겠네. 이래서 싸구려들한테 맞기면 안된다니까....**(옆에 다른 스텝에게) **여기다 누가 맡겼어?** (아무도 대답을 안하는 스텝들) **이래서 내가 직접 해야된다니까...**
은아: (자존심이 많이 상한듯) **맘에 안드시면 다시 해다 드릴께요. 우선 가져온 거니까 받으세요.**

은아 꽃바구니를 건네는데 지배인 신경질적으로 탁 쳐버린다.
바닥에 떨어져 망가지는 꽃다발. 당황한 은아 황급히 주저앉아 꽃을 담는데

지배인: (경멸하듯 은하를보며) **됐고, 돈은 줄테니 그냥 가지고 가요. 야 미스터 김 이거 치워! 바빠 죽겠는데 별것들이 다 속을 썩이네 .**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지배인. 쭈그리고 꽃을 담는 은아 서럽다. 그 곁에 다가오는 누군가.

소리: 줍지마.

은아 고개를 들면 화난 노식이 서있다. 흥분한 노식 지배인을 보며

노식:(금방이라도 한데 팰듯) **야! 니가 주워. 귀먹었어? 니가 주우라고…**

황당한 지배인 뭔가 말하려는데

신경질적으로 꽃바구니를 집어 들어 내던지는 노식.
지배인의 얼굴에 맞아 떨어지는 꽃바구니.
이내 뒤엉켜 싸우는 노식과 지배인. 세팅된 테이블 위로 자빠지는 두사람. 우당탕 쿵쾅....
그러나 노식 완전 열세다. 지배인 신나게 때리다가 웨이터들 만류로 일어선다.

지배인:(노시을 노려보며) **일진 드럽네 오늘. 별 미친놈이 다 덤비네.**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서는 노식. 입술이 터져 피가 난다.
노식 옷을 툭툭 털며 은아의 손을 잡고 나간다. 땅에 구르는 꽃바구니.

S#68 레스토랑 앞 (낮)

상처난 노식을 보고 놀라 달려오는 안비서. 노식, 손사래 치며 됐다는 시늉.
불안한 표정의 안비서 마지못해 차에 오른다. 남겨진 노식 그리고 은아.

은아: (걱정스레)....**싸움도 못하면서....**

노식의 코에서 코피가 주르르 흘러내린다.
은아, 깜작 놀라 손수건을 꺼내 노식의 코를 닦아준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보살피듯. 서둘러 고개 피하던 노식 왠지 은아가 하는데로 맡긴다.
은아의 옆얼굴을 보는 노식의 표정이 어느덧 착해진다. 얌전한 표정의 은아 이런 노식을 가만히 올려본다.
어쩔 줄 모르며 다른데로 시선을 옮기는 노식. 이를 보고 미소짓는 은아.

은아:(조금전과는 다르게 다정하다) **부자 됐다고 싸움도 잘 할줄 알았던 거야?**
노식:(은하의 눈을 첨으로 보며) **내가 부자라서 싫어?**
은아:(은아도 희의눈에눈을 맞추며) **내가 사랑했던 회도씨는 돈 벌고 출세 하는 회도씨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고 그림을 사랑하는 회도씨였어..**

노식, 감정변화가 얼굴에 약간 보인다.

은아: (상처를 만지며) **얼굴에 흉지면 어떡하지? 가서 내가 약사올게. 잠깐만 기다려. 가면 안돼 회도씨, 알았지?**

멍한 노식 물끄러미 은아를 쳐다본다. 은아 조금 미소를지며 뒤돌아가려는데 이상한
감동으로 은아를 와락 나꿔채며 안는 노식.

은아: (노식에게 안기며 눈물이 고인다) **회도씨! 정말 보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보구 싶었는데....**
노식: (은아에게 머물고 싶은 감정과 빠져 나갈려는 감정이 서로 다투며) **나, 나두 그래…**

행복한 은아는 눈물을 흘리며 노식에게 키스를 한다. 얼어붙듯 충격을 받는 노식.

S#69 희도의 옥탑방 (낮)

문두드리는 소리에 희도가 일어난다. 문을 열면 쇼핑백을 든 혜린이 서 있다.
희도 급히 태석을 깨운다. 혜린 들어와 앉는다.

혜린:(이제는 희도를 믿겠다는듯) **일단 당신 말을 믿기로 하죠.**

기쁜 얼굴의 희도. 얼굴에 화색이돈다.

혜린: 단 한가지 만 약속해요. 일종의 거래 합의죠. 당신은 몸을 찾구 난 내 몫을 찾구. 물론 성공한다면 재산의 얼마간은 당신에게도 떼 주겠지만....
희도: (고개를 가로 저으며) **전 돈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몸만 찾으면 되니까 돈은 알아서 하세요.**
혜린: (결심한듯) **오케이! 그럼 늦장 부릴 시간이 없어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돼요. 알고 있죠? 강노식은, 아니 당신은 얼마 못살 꺼라는거.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겠지만...**

희도,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혜린, 시무룩한 희도에게 멋진 검은 정장세트와 구두를 꺼내든다.

혜린: 입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민희도가 아니라 강노식이에요. 완벽한 강노식 따라잡기. 방법은 그것 뿐이에요.

태석은 옆에서 졸린 눈만 비비고 있다 양복을 보고 눈이 반짝거리는 태석

태석:(물건볼줄안다는듯) **야아. 이거 알마니잖아. 끝내주는구만. 몇 백은 우습겠는데?**
혜린: (메모를 건네며) **오후 다섯 시에 여기로 나오세요. 만날 사람이 있어요.** (태석을 보며) **댁이 모시고 와요. 그럼 이따 뵙죠. 그만 일어나겠어요.**

혜린, 일어나 나가고 양복을 가만히 잡아보는 희도. 슬금거리며 다가온 태석.

태석:(아주 다정하게) **희도야 그 옷 맡기구 한게임만 하자? 응?**
희도:(고함을 지른다) **삼촌!**

S#70 고급 일식당 (저녁)

조용한 특실. 낮은 조명 아래 마주 자리한 혜린, 윤이사. 상 위에는 값비싼 요리들이 벌써 차려져 있다. 혜린과 윤이사 말없이 앉아 있다. 어색한 침묵....
시계를 보고 혜린을 쳐다보는 윤이사 물잔을 든다. 혜린도 시계를 한번 본다.
다소 초초한 기색.

이때 드르륵 열리는 미닫이문. 그 사이로 보이는 검은 양복의 희도. 완벽한 강노식이다.
윤이사 희도를 보고 경악해 물잔을 놓친다. 그 모습에 만족한 미소를 짓는 혜린.
고개를 돌려 희도를 보는 혜린. 스스로도 놀라울 따름이다.
(시간경과)

윤이사: (놀라서 일어서며) **회, 회장님…**
혜린: (희도에게 눈짓을 잠깐 한다) **윤이사님, 이래도 제 말을 못 믿으시겠어요? 강인식은 회장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회장님이 모든 걸 다 넘겨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권한이 윤이사님께 넘겨질까봐 강인식이 조작한 거예요. 회장님께서 이사님을 신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님께선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윤이사: 어, 어떻게 그런일이…
혜린: 회장님께선 윤이사님을 총애하셨습니다.

혜린 희도를 보면 희도 고개를 끄떡거린다. 마른 침을 삼키는 윤이사.

혜린: 강인식을 제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윤이사: (눈이 빛난다) **어떻게…**
혜린: 곧 은행 간부들을 만날 겁니다. 간부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회사 법인 카드와 회장님 지문으로 인식된 금고 안의 서류를 찾아야 돼요. 강인식이 그걸 놓쳤거든요. 서류만 조작했지, 그걸 찾는 방법은 깜빡 했던 거죠…(은밀한 말투로) **도와 주실거죠?**
윤이사:(조금 망설이며) **은행 간부들이 이런 일을 믿어줄지…**
혜린: (단호하게) **회장님이 살아 계신다구요! 그 동안 숱한 거래를 해 왔던 회장님을 못 알아볼 리 없잖아요? 윤이사님은 회사쪽 주주들을 설득하고, 법인카드를 가져다주시면 돼요. 열흘 뒤 은행에서 뵙도록 하죠. 이번 일이 성사되면 회사의 후계자는 윤이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윤이사: (비장하게) **알겠습니다.**

S#71 노식 집 (낮)

노식의 집에 들어 선 은아. 호화로운 집 구조에 놀라는데 일렬로 늘어선 집사들 인사에 더욱 당황한다.
은아의 어깨를 감싸 방으로 안내하는 노식.
방문을 열면 보이는 넓은 공간. 은아를 위해 준비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구 일체.
노식 은아의 손을 잡고 벽장을 열면 주인을 기다리는 명품들. 옷, 신발, 악세사리 넘친다.
멍해서 노식을 보는 은아.

노식: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전부 다 니꺼야.**
은아: (잠시 둘러보다 무표정하게)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노식: (당황) **무슨 소리야. 앞으로 나랑 같이 다니려면 이런 옷들은 입어야지.**
은아: (노식을 빤히 쳐다보며) **회도씨 나한텐 이런옷 어울리지도 않아 불편하기만 하지.**
노식: (이해가 안된다는듯)**무슨 소리야 . 너줄려고 얼마나 비싸게주고 산 옷들인데….**

은아: 희도씨, 지금 이런 모습 정말 낯설다.
(화내며)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노식: 이런 게 싫어? (지갑을 꺼내며) **그럼 돈으로 줄테니까 너가 원하는걸 사입을래?**
은아: (기막힌 듯) **이러지마 희도씨, 희도씨가 자꾸 이러면 이럴수록 난 대학로에서 그림 그리던 희도씨가 더 그리워질 뿐이야 .나 갈게.**
노식: (돌아가려는 은아를 잡고) **가지마. 옆에 있어줘. 니가 필요해…**
은아: (망설이다) **희도씨, 첨부터 그렇게 말하면 좋았잖아.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날 필요로 하는 희도씨 옆에 난 있고 싶어. 희도씨가 아무리 변했어도 나한테만은 예전처럼 대해줘 부탁이야.**
노식: (힘들게) **알았어...**

노식을 힘껏 껴안는 은아.

S#72 혜린의 집 (낮)

식탁 위에 일식요리가 코스별로 차려져 있다. 그것을 사이에 두고 앉은 혜린과 희도, 태석.
희도는 어리둥절한 표정인데 태석은 값비싼 음식들을 보고 기대에 찬 표정이다.

혜린: (침착하게) **곧 은행 간부들과 식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인간의 식성이 워낙 유별나서 괜한 오해 사지 않으려면 익혀야 해요.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 금융에 관한 지식들도 배우게 될 겁니다.**

긴장하는 표정의 희도. 희희낙락한 태석.

혜린: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강노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식습관부터 하죠. 그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일식이죠. (음식을 가리키며) **이건 전채로 나오는 죽순 성게알 무침이예요. 항상 이걸 제일 먼저 먹지요. 먹어보세요.** (희도 먹으면 별로라는 표정이다)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그런 표정지으면 곤란하겠죠?** (혜린 다른 접시를 가리키며) **자라만두예요. 자라가 몸에 좋은 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건 꼭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더군요. 항상이요. 기억하세요.**

혜린의 계속되는 설명. 희도 음식의 맛을 보며 혜린의 설명을 기억하고 태석은 그 옆에서 혜린과 희도의 눈치를 보며 설명이 끝난 접시를 들고는 먹기에 바쁘다.
(시간경과)

혜린: 그 다음은 회예요. 고추장이나 간장은 절대로 찍어먹지 않아요. 물론 쌈에 싸지도 않지요. 회의 본질적인 맛을 즐기는 거죠. (혜린 또 다른 접시를 가리킨다) **강노식이 제일 좋아하는 성게 오븐구이예요. 구이는 이거 빼고는 건들지도 않아요. 괜히 다른 구이는 맛도 보지 말아요. 은행 간부들은 강노식의 식습관에 대해서는 익히들 알고 있으니깐....**

바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외우는 희도. 그 옆에서 분주히 먹어대는 태석.

슬쩍 태석을 흘기는 혜린. 서서히 어두워진 밖.

S#73 몽타주- 노식과 은아의 데이트 (낮)

-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는 노식과 은아. 은아가 노식의 손을 잡고 놀이기구 앞으로 끌고 간다. 노식은 마지못해 은아를 따라가지만 은아와 함께 하는 표정이 즐거워 보인다. 놀이기구를 타는 은아와 노식의 행복한 표정.
- 라면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은아가 노식을 끌고 줄의 끝쪽에 가서 선다. 노식의 팔짱을 끼는 은아. 어색하게 미소 짓는 노식. 라면을 맛있게 먹는 은아와 노식.
- 사람들이 무진장 다니는 길거리에서 팔짱을 끼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은아와 노식.
- 노식과 은아,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저 멀리 지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 어깨를 감싸 안는다.

S#74 은아 집 앞 (밤)

멀리서 은아의 집을 바라보고 있는 희도. 그때 승용차가 도착하고 뒷좌석에서 은아와 한 남자가 내린다. 희도 재빨리 몸을 숨기고 고개를 살짝 빼 은아를 바라본다. 은아 그 남자에게 안기며 키스를 한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는 희도. 손을 흔들며 행복한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은아.
희도 온 몸에 힘이 빠진다. 남자는 은아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 뒤돌아선다. 자신의 모습이다. 경악하는 희도. 재빨리 차를 뒤쫓아 보지만 느린 걸음이라 차는 이미 저만치 사라지고 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꺽꺽 우는 희도.

S#75 몽타주 - 희도의 이미지 (밤)

- 대학로 자신이 그림 그리던 자리에 서 있는 희도.
- 화려하게 빛나는 거리의 네온사인들, 그 중심에서 쓸쓸히 걸어가는 희도.
-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버스정류장의 불빛. 라이트박스에 걸려 있는 여자 광고 모델, 환하게 웃고 있는데, 희도 그 여자 모델을 멍하니 바라본다. 마치 그 모습이 은아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지 쓸쓸히 눈물짓는다.

S#76 희도 옥탑방 (밤)

태석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있다.
비에 젖은 희도 힘없이 들어와 앉는다.
숨이 찬지 바닥에 앉아 한 참 숨을 고른다.

태석: 왔냐? 밖에 비오냐?

희도, 넋나간 사람마냥 대답이 없다.

희도 고개를 들어보면 태석은 한참 컴퓨터를 하고 있다.
그때 문득 생각이 스치는 희도. 태석을 급하게 밀어낸다.

태석: 에이 씨발, 왜 그래, 한참 잘 나가고 있었는데....

희도 무시하고 메신저를 열어 접속한다.
태석 희도에게 수건 하나를 던진다.

태석:(희도가 안되보이는지) **물기나 닦아라.**(길게 한숨을쉬며) **불쌍한 놈 ....**

모니터엔 모나리자가 접속해 있다. 희도, 모나리자에게 대화를 신청한다.

(다빈치: 은아야....)
(모나리자: 벌써 집에 간 거야?)
(다빈치: 은아야....)
(모나리자: 우리 메신저 오랜 만이다 그치?)
(다빈치: 은아야....)
(모나리자: 왜, 왜 자꾸 불러?^^)
(다빈치: 너 나 믿지?)
(모나리자: 그럼....)
(다빈치: ....)
(모나리자: 뭐?)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야....)
(모나리자: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만난 나는 내가 아니라구....)
(또 왜 그래? 오늘 뭐 화난 거 있어?)
(다빈치: 믿을 수 없겠지만,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모나리자: 왜 그래?)
(다빈치: 어쨌든 그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내 몸을 훔쳐간 사람이라구)
(모나리자: 왜 그래? 장난 하지마. 나 얘기 안할래. 그만 나갈게)
(다빈치: 은아야...은아야…)

종료되는 메신저. 미친듯이 자판을 두드리는 희도.

S#77 희도의 옥탑방 (아침)

희도와 태석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희도가 너무 느리고 조심스럽게 내려가자 뒤에서 인상을 쓰고 있는 태석.

태석: 야 근데 니 팬스랑 내꺼랑 다 어디갔냐? 없는 동네라 그딴것도 훔쳐가나 젠장....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50대 주인 아줌마. 자세히 보면 희도와 태석의 속옷빨래다.

태석: (놀라) **아니, 아줌마, 왜 우리 빨래를 아줌마가 해요?**
아줌마: (쑥쓰러운듯) **그냥..한집에 살면서 이정도도 못해주나?**
태석: 방값 내라고 맨날 달달 볶을 땐 언제구. 아줌마가 빨래를 해 주는데 이상하잖아요.
아줌마: (부끄러워 하며 희도에게 윙크한번 하고) **어디 가시나 봐요?**
희도: (애써 외면하며) **예....**
아줌마: (다시 윙크 한번) **언제 시간되시면 사거리에 새로 연 노래방에나 가시죠?**

태석 대충 사태를 파악하고 아줌마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태석: 아줌마, 저희 작은아버지는 야한 여자를 좋아하세요.빨간 립스틱....알죠?

아줌마 조금 민망하지만 한 건 했다는 표정. 그때 혜린 들어온다.

혜린: 준비됐으면 가요.

희도 혜린을 따라나가면 아줌마 질투하며 널던 빨래를 집어 던진다.

아줌마: 어디서 순 불여시 같은게....근데, 내가 빨간 루즈가 있던가?

S#78 몽타주- 강노식 따라잡기.

- 전문가가 설명하는 화면을 보는 희도.
- 필기도 해 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희도.
- 희도, 앞에 나와서 설명하고 혜린이 듣는 모습. 태석은 그 옆에서 졸고 있다.
- 옷가게. 비싼 양복들을 걸쳐보는 희도.
- 명품구두를 신어보는 희도.
- 명품시계를 차보는 희도.
- 미용실. 노식의 모습으로 머리를 만드는 희도.
- 주식시장을 둘러보는 희도와 혜린. 뒤따르는 태석.
- 일식당. 제법 폼나게 식사를 하는 희도.
- 만족한 표정의 혜린 희도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 수줍게 웃는 희도.

S#79 노식의 집. (밤)

긴 식탁이 놓여 있고 은촛대 위에 빛나는 양초들. 가까이 앉아 식사를 하는 은아와 노식.
옆에 시중드는 집사들의 조용한 움직임.
와인잔에 채워지는 자주빛 와인. 행복한 표정의 은아와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노식.
노식 은아의 옆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보다 손짓으로 집사들을 내보낸다.

약간 당황하는 은아. 노식, 의자를 은아 쪽으로 바짝 당기며

노식:(어느듯 사랑스러운 말투로) **오늘, 자구가.**
은아: (발그레) **안돼....**

S#80 혜린의 집 앞 (밤)

혜린의 집에서 희도와 태석이 나온다. 대기중인 모범택시. 이들을 배웅해 주고 있는 혜린.
택시에 타고 떠나는 희도 일행. 곧이어 차 한대가 도착하고 윤이사가 차에서 내린다.
혜린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윤이사. 차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안비서. 노식에게 전화를 건다.

(안비서와 노식의 분할화면)

안비서:(조금 상기된 목소리로) **회장님, 이혜린과 민희도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노식: (은아의 눈치를 보며) **제까짓게 움직여 봤자지.**
안비서: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노식: 그렇게 해.

S#81 노식의 방 (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노식. 옷입은 채 수줍게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은아.
노식 그 앞에 무릎 꿇고 앉는다. 침대의 커버는 예전 같지 않은 순백색이다.
노식, 은아의 얼굴을 사랑스레 들여다보고 은아 그 눈을 조용히 피한다.
(시간경과)
노식 은아와 나란히 누워있다. 긴장한 표정의 은아.
노식 몸을 돌려 은아에게 부드럽게 손을 댄다. 수줍은 은아의 표정.

은아:(수줍은듯) **저기....나...?**

은아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 노식. 노식 은아의 브라우스를 풀면 은아의 부드러운 속살이 드러나고 은아는 부끄러운 듯 이불을 끌어다 덮는다.
노식, 부드럽게 은아를 애무하며 은아는 낮은 신음소리를 낸다.
조금씩 열정적으로 변하는 은아. 더불어 거칠어지는 노식의 호흡..
순간 행위를 멈추며 일어서는 노식.

노식:(노식 스스로 당황하며) **오, 오늘은 안되겠어. 미안해.**
은아: (혹시 자신이 뭘잘못 했냐는듯) **왜 그래 희도씨?**
노식: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문을 열고 나가는 노식의 당황한 얼굴. 자존심 상한 은아.

S#82 응접실 (밤)

불 꺼진 응접실.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위스키 잔.
처량하게 흐느끼는 소리. 노식이다.
술을 급하게 연거푸 들이키는 노식.
안비서 조용히 술잔을 채운다.

노식: 내가 왜 이러지? 저런 계집애 한테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응?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민희도의 육체가 예전의 애인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빌어먹을…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상하게 난 그 여자를 갖고 싶다구 …

갑자기 이성을 잃은 듯 술병을 집어 던지는 노식. 날아간 술병이 유리벽에 맞아 박살난다.
노식 미친듯이 남은 술을 들이키고 취한 듯 의자에 깊게 파묻힌다.
정성스레 모포를 덮어주는 안비서 노식을 안쓰럽게 바라본다.

S#83 희도 옥탑방 (밤)

컴퓨터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희도.
태석은 보이지 않는다.
잠시 후 '모나리자 님이 로그인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대화창 뜬다.

(모나리자: 아까 왜 그랬어?....내가 얼마나 무안했는줄 알아?)
(다빈치: ....은아야, 내 말 좀 들어봐.)
(모나리자: 무슨 말?)
(다빈치: 니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모나리자: 왜 그래, 자꾸....)
(다빈치: 날 믿어줘....그 사람은 내가 아니야.)
(모나리자: 정말 왜 이래?)
(다빈치: 너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게 이상하지 않아? 믿을 수 있어?)

(인서트) 은아의 잠깐 모습 보인다. 표정이 심란하다.

(모나리자: 도대체 모르겠어. 요즘 이상해.)
(다빈치: 믿기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이것저것 자세하게 물어봐.)
(모나리자: 지금 농담해?)
(다빈치: 그동안 나랑 있었던 일들도 물어봐. 제발....마지막 부탁이야.)

로그아웃 한 은아. 망연자실한 표정의 희도.

(인서트) 은아 표정이 어둡다.

S#84 하우스 앞 (새벽)

초췌한 모습의 노름꾼들이 비적거리며 나선다.
그들 중에 끼여 있는 태석. 피곤한 얼굴로 걸어가고 있다. 태석의 뒤를 따르는 안비서의 차.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서자 안비서 차를 멈추고 내린다.

안비서: 민태석씨!
태석: (놀라서 뒤돌아본다)

S#85 차 안 (새벽)

앞자리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안비서가 묵직한 가방 하나를 태석에게 넘긴다.
태석 받아들고 열어보면 가득한 현금다발들. 태석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가방을 든 손이 떨린다.

S#86 길 (새벽)

태석이 가방을 신주단지처럼 안고 걸어가고 있다. 거금이 들어와 불안한지 연신 주위를 경계한다.
태석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

- 씬 83 회상 1
  안비서: (웃으며) **그거면 당신의 한방이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 씬 83 회상 2
  안비서: (나지막히) **아무도 모르게… 목숨을 위협하는 게 아니니까 죄책감 같은 건 갖지 말고…**

- 씬 83 회상 3
  안비서: (빙긍 빙글한 웃음) **삼촌이 한 일은 용서하겠지.** (작은 보석 상자를 내밀며)
  여기다 민희도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잘라 담아오면 돼.

주머니에서 엄지손가락을 담을 작은 상자를 꺼내보는 태석. 눈시울이 붉어진다.

S#87 희도 집 (새벽)

술에 취한 태석 돈가방을 꼬옥 안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희도가 구석에서 새우처럼 구부리고 잠들어 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 태석 이를 악물고 희도 곁으로 간다. 뒷주머니에서 맥가이버 칼을 꺼내 날을 편다. 번뜩이는 칼날. 태석, 희도의 한쪽 손을 끌어와 엄지손가락을 손에 쥔다.
떨리는 손으로 희도의 엄지손가락에 칼날을 들이댄다. 눈을 질끈 감는 태석.

S#88 은아의 꽃가게 (낮)

은아: (전 씬과 디졸브 되면서 들리는 비명) 아…

은아 손을 보면 장미가시에 찔려 피가 난다. 휴지로 대충 닦고 만들던 꽃바구니를 마무리 한다.

S#89 대학로 거리 (낮)

은아 꽃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던 은아.
갑자기 어딘가에 시선이 고정되더니 다가간다. 예전에 희도가 그림을 그리던 그 자리.
추억이 떠오르는 은아의 표정. 바로 그곳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노인네.

은아: (조심스럽게) **저기, 죄송한데요, 여기서 언제부터 그림 그리셨어요?**
희도: (고개 숙인 채) **오래됐어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갸우뚱한 은아의 표정. 희도 왜 안가나 싶어 고개를 들면 꿈에 그리던 은아다.
당황해 얼어붙은 희도. 그 얼굴을 재밌다는 듯 쳐다보던 은아. 희도를 바라보다가

은아: (잠시 생각) **어, 지난번에 저랑 부딪치셨던…. 맞으시죠?**
(웃는다) **그때 죄송했어요. 근데, 그림 그리세요?**
희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다 일어서며) **죄송해요..화장실에 좀**

부리나케 자리를 뜨는 희도. 영문을 모르는 은아.
은아, 희도가 그리던 그림을 들여다본다. 표정이 굳어지는 은아.
도화지엔 은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손엔 꽃다발도 들고 있다.
오른쪽 구석에 휘갈겨 쓴 말. **'보고싶다. 은아야'** 그림을 손에 든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은아.
희도 조금 떨어진 모퉁이에서 은아의 모습을 지켜본다. 눈물로 얼룩진 희도의 모습.

희도: (말을 잇지 못하며) **은아야….**

S#90 조용한 카페 (오후)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혜린. 그 앞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는 은행임원.
뭔가 되간다는 듯한 혜린의 만족스런 표정.
카메라 팬하면 옆에서 유심히 듣고있는 30대 남자.
표정은 서늘한데 손에는 소형녹음기가 들려져 있다. 혜린의 대화를 녹음중인 녹음기.

S#91 패밀리 레스토랑 (저녁)

경쾌한 실내분위기.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로 식사를 하고 있는 은아와 노식.

은아:(아주자연스럽게)....**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희도씨?**
노식: (당황하며) **글쎄....기억이 잘 안나는데....**
은아:(약간 삐진척하며) **처음 만났을 땐, 눈 오는 날이었잖아. 생각나지? 처음으로 근사한 곳으로 데려가 준다며 데리고 온 곳이 여기잖아. 기억안나 희도씨?**

밝지만은 않은 은아의 표정. 시선을 피한 채 냉수만 들이키는 노식.

은아: (조금 보채듯) **기억....나지?**
노식:(뭔가 생각난듯한 표정으로) **그, 그랬지. 내가 잠깐 깜박했네....하하..**

은아 얼굴에 의혹이 서서히 드린다. 그러나 침착을 유지하는 은아.

은아: 그때도 같은 거 시켰어. 희도씨가 젤 좋아하는 거.
노식: (손이 잠깐 떨린다) **내가 원래 스파게틸 좋아하잖아.**

은아의 표정 이젠 어둡다.

은아: (낮은 목소리) **우리 메신저 아이디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하지?**
노식:(당황하는 기색) **어,어떻게 만들었었지?**
은아: 그냥,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들었지.
노식:(어색하게 웃으며) **그, 그렇지....하하하**

은아 가만히 노식을 본다. 당황하는 노식 애써 미소를 보이며

노식:(뭔가 만해 해볼려는 듯 애쓰는 희도) **은아야.... 그러지 말구 우리 뭣 좀 더 시켜먹자. 너 스테이크 좋아하지?**

노식 황급히 웨이트리스를 손짓한다.

은아: (표정 싹 변하며) **당신, 누구죠?**
노식: (놀라며) **뭐라구?**
은아: (차갑게) **당신은 희도씨가 아니야....**
노식: ....
은아: 우린 여기 온 적도 없어. (눈물 글썽이며) **희도씬 스파게티를 싫어했어. 그리고 우린 비가 오는 날 만났어. 난 스테이크를 먹지 않아요.....**

당황하는 노식.

은아: 아이디는 함께 몇날 며칠을 고민해서 만든 아이디예요.

노식:....
은아: (따지듯)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대체 누군 거죠?**
누군데 희도씨 흉내를 내고 있는 거냐구요!

노식, 순간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해진다.
말없이 바라보는 은아의 눈빛. 은아 벌떡 일어나 뛰쳐나간다.
노식, 뭔가를 결심한 듯 천천히 일어난다.

S#92 한강 다리 밑 주차장(밤)

지하철이 덜컹 거리며 조명등이 환하게 켜진 다리를 지나고 있다.
태석과 안비서가 다리 밑에 마주 서 있다.

태석 : (가방을 건네며) **없던 일로 합시다.**
안비서: (당황하며) **액수가 적은가?**
태석:(담담하게) **아뇨.**
안비서: 그럼?
태석: 게임은 이기고 나서 희열을 느낄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면 쓴맛을 보죠. 제가 이 돈으로 얻는 건 부를 얻은 희열이 아니라 비겁한 짓을 한 죄책감입니다.
안비서: 그래? 할 수 없군. 그럼 내가 해야지.

태석을 노려보는 안비서, 그 눈빛에 주눅이 든 태석.
태석 불안한 눈빛으로 안비서를 쳐다본다.

안비서: 이혜린이랑 일을 꾸미고 있더군.
태석: (태석 불안한 표정) **누...누가 그래요?**
안비서: (노려보며) **넌, 돈이라면 다 되는 놈 아닌가?**
태석:(태석도지지 않을려는듯) **협박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해보시지요.**

태석, 그냥 휭 가버리자 안비서 사라지는 태석을 날카롭게 바라본다.

S#93 은아 집 (밤)

은아, 침대에 앉아 희도 와의 사진을 보고 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한 날의 은아와 희도. 사람 좋게 씩 웃고 있는 벽에 걸린 희도의 초상화.
은아, 그 모습이 그리움으로 진하게 다가오는지 눈물이 쭈욱 흐른다. - 페이드 아웃.

S#94 차 안 (오후) - 페이드 인

조수석에 앉은 잔인한 인상의 30대 남자. 카페에서 녹음을 하던 바로 그자다.
녹음기와 사진 몇 장을 옆에다 내민다. 받아드는 손. 안비서다.

안비서 귀에 대고 녹음기를 작동시킨다.
(시간경과)
안비서 사진을 들면 혜린, 희도, 태석, 윤이사 등등이 담겼다.
안비서 그중 혜린 사진에 붉은 마카로 표시한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30대 남자.

S#95 희도의 집 옥탑 앞 (저녁)

어두운 골목에 비가 내린다. 혜린의 차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매섭다.
한 귀퉁이에 우산을 쓴 채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남자.
카메라 느리게 팬하면 문 앞에 빨간 우산을 받쳐쓴 혜린과 희도가 서 있다.

혜린: (따뜻한 미소를 지며) **드디어 오늘 밤 이군요. 한 순간이 모든 걸 결정해요.**

희도, 씁쓸하게 웃는다.

혜린: 긴장하지 말고 잘하세요. (카드를 꺼내 건네며) **법인 카드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요.

희도, 카드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다.

혜린:(진심으로) **행운을 빌어요.**
희도: 예. 그럼.

혜린 멈추더니 희도에게 선뜻 자기 우산을 건넨다. 희도 잠시 당황하면

혜린: (웃으며) **받아둬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한 선물이에요 .**
(미소) **괜히 감기라도 들면 거사에 지장이 막대하겠죠?**

혜린 차를 타며 장난스레 손을 흔든다. 희도 어색하게 손을 흔든다.
빠르게 떠나는 혜린 차의 미등. 가만히 우산을 들고 바라보는 희도.

S#96 은아 방 (밤)

울고 있는 은아, 컴퓨터로 메신저에 접속하지만 로그인 되지 않는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은아.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은아부가 들어온다. 얼른 뒤돌아 눈물을 훔치는 은아.

은아부: (전과 딴판인태도) **오늘은 데이트 안하고 들어왔니? 한창 재밌을 땐데...**
(은아 표정보고) **그럼 쉬 거라…**

은아의 눈치를 보며 바닥에 슬쩍 신문을 놓고 나간다.

은아부가 나갔는지 뒤돌아보다가 신문을 발견한 은아. 청솔금융의 후계자 강인식의 기사다. 신문을 집어 들고 희도의 사진을 보며 손가락으로 어루만진다. 그 옆쪽에 사망한 전 회장인 강노식의 사진이 실려 있다. 시선을 멈추는 은아. 노식의 사진을 자세히 본다. 얼마 전 만났던 대학로의 그 노인과 같다. 점점 복잡해지는 은아의 표정.

S# 97희도 옥탑 방 (밤)

거울을 보며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는 희도. 옷에 먼지라도 묻었을까 염려하는 듯 손으로 옷을 탁탁 털며 신경을 쓰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태석이 들어온다. 태석의 머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진다.

희도: (담담하게) **삼촌 이제와?**
태석: (눈을 못 마주치고) **으...응...**

태석, 담배를 꺼내 연신 빨아댄다. 뭔가 희도에게 할말이 있는듯 희도의 눈치를 살핀다.

희도: (이상한 듯) **왜 그래 삼촌, 무슨 일 있어?**
태석: (고개 숙이고) **아냐, 일은 무슨....**
희도: (답답한 듯)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봐?**
태석: **그게...그러니까 말이지....**(이제야 양복 입은 희도가 눈에 들어온 듯)
너 지금 뭐하는 거야?
희도: (담담하게) **오늘 밤이잖아 삼촌.**
태석 : (눈에 불을 켜고) **희도야, 아무래도 안되겠다. 관두자, 우리!!**
이 새끼들 벌서 눈치 챈것같애. 이 새끼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희도: (놀라는 희도, 하지만 각오한 듯)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난 곧 죽어.**
가야 되 삼촌.
태석: (설득하듯) **희도야, 니가 덤빌 놈들이 아냐.**
희도: 몇 시간 후면 강인식의 모든 권한은 내가 갖게 돼.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라도 해봐야지.
태석: (불안한 듯) **그 자식들은 이제 너한테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은아…은아도 가만 안둘거야.
희도: 각오하고 있어. 그래도 마지막 게임은 해 봐야지.

잠시 표정이 변하는 희도.
눈이 붉게 충혈 된다.
긴 한숨을 쉰 후, 다시 거울 앞으로가 옷매무새를 고친 후 완벽한 노식이 된다.
밖으로 나가려다 태석에게 다가가며.

희도: (오히려 편하게) **삼촌 그렇게 도박이 좋아?**
태석: (희도의 갑작스런 질문에 뜨끔하며) **좋은게 아니라, 뭐랄까.. 사는데 희망이 없어서 하는 거다.** (이를 앙물며) **이 삼촌도 조만간 한 방 한다!**

희도: (장판을 가리키며) **저기 장판 밑에 돈 좀 있으니까 그걸로 절대 하우스 가지 말고 새 출발해.**

태석: (약간 돌변) **너 내가 그렇게 힘들 때는 돈 한 푼 없다고 하더니만...**

희도: (은아를 생각하며) **은아랑 결혼하려고 조금씩 모은 돈이야. 삼촌 가져.**

태석: (단호하게) **싫어! 그래도 내가 니 삼촌인데 그런 돈을 어떻게 쓰냐?**
(조금 으쓱하며) **넌 삼촌을 아직 그것 밖에 모르냐?**

희도: (마지막인 듯) **삼촌, 정말 물새네 하우스만 가지마라, 거긴 백번하면 백번 다 지는데야.**

태석: 너 지금 나한테 하우스가지 말라고 하고, 너는 그 놈한테 인생 도박하러 가냐? 나도 안갈테니까 너도 가지마.

희도: (말을 돌리며) **삼촌 제발 그 돈 가지고 새 출발 해... 월세라도 얻어서... 알았지?**

그 말에 눈물을 약간 글썽이는 태석.

희도: (감정을 참으며) **꼭이야 삼촌. 하우스 가면 안돼 알았지? 비밀번호는 1245야.**

희도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태석.

S#98 혜린 사무실 복도/ 엘리베이터 (밤)

어두운 로비, 건물의 간접 조명이 유일한 빛이다.
엘리베이터의 1층 버튼이 깜박깜박 대며 자동문이 닫히려고 한다.
"후다닥" 누군가 황급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간다.
가까스로 엘리베이터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여자, 혜린이다.
순간의 차이로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린다. 안도의 숨을 쉬며 엘리베이터에 타는 혜린.

(엘리베이터 안)

혜린, 13층 버튼을 누르는데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미 한 남자가 타고 있다.
미안한 듯 남자에게 눈인사를 건네는 혜린, 헌데 남자, 혜린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혜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엘리베이터가 '윙'하며 올라가는데, 동시에 문자가 왔다는 핸드폰 알림벨이 울린다.
뒤쪽의 남자를 의식하며 불안한 모습으로 핸드폰 폴더를 열어보는 혜린.

" 고마워요, 혜린씨도 오늘은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잘해낼께요. - 희도 "

혜린, 살포시 웃는데 핸드폰 액정 화면에 뒤쪽 남자의 미세한 움직임이 비쳐진다.
뭔가를 꺼내는 듯 한 뒤쪽 남자의 미묘한 움직임. 혜린, 고개를 살짝 돌리면, 회칼이다.
뒤쪽의 남자가 회칼로 혜린을 찌르려고 한다. " 컥 " 숨이 막히는 혜린.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중년여자가 탄다.
일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긴장감이 확 도는데.
회칼로 혜린의 옆구리를 들이대는 남자. 혜린 아무 말도 못한다.
중년여자가 핸드폰으로 수다를 떤다.
혜린, 엘리베이터의 숫자판을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다.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춘다. 중년여자가 내릴 준비를 한다.
혜린 점점 초초해진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나가는 중년여인.

혜린 : 저기요!
중년여인 : (뒤를 돌아 혜린을 쳐다본다)
남자 : (뒤쪽에서 회칼로 혜린의 몸에 칼을 더욱 깊게 들이대며 위협한다)
혜린 : 지갑 떨어졌어요.

다시 들어와서 바닥을 살피는 중년 여인, 그 바람에 혜린과 남자가 뒤로 주춤거린다.
그 틈을 노려 엘리베이터 밖으로 뛰쳐나가는 혜린.
남자가 황급히 중년여자를 밀쳐내고 혜린을 쫓아간다.

S#99 복도(밤)

아무 사무실이라도 들어갈려는 혜린, 그러나 늦은 시간이라서 사무실이 모두 닫혀있다.
빠른 속도로 남자가 쫓아온다.
비상구 계단쪽으로 뛰어가는 혜린.

O . L .

계단을 마구 내려가는 혜린의 하이힐.
혜린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잔뜩 움추려 있는데 손에 든 핸드폰을 급히 연다.
두 계단씩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남자의 검은 구두.

O . L .

남자가 코너를 돌아 서둘러 다음 계단으로 내려간다.
다음 계단으로 사라져가는 혜린의 뒷 모습이 얼핏 보인다.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는 남자.

순간 **" 쿵 "** 빨간 소화전이 남자의 머리를 강타한다.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남자.
소화전을 들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혜린.
혜린, 남자의 나가떨어진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가 순간 깨달았는지 들고 있던 소화전을

내팽겨치고 전화를 건다. 하지만 누군가 전화를 받지 않는지 핸드폰을 끄고 급히 문자를 날리기 시작한다.
그 때, 계단으로 굴러 떨어진 남자가 '끄응' 하며 꿈틀거리더니 다시 일어선다.
혜린, 다시 비상구 문을 열고 복도로 허겁지겁 뛰쳐나간다.

S#100 복도(밤)

마구 달려가는 혜린, 마침 맞은편에서 경비원이 걸어온다.
숨을 헐떡이며 경비원에게 달려가는 혜린, 너무 숨가쁘다.

혜린 : (헉헉) 아저씨 ! 빨리 경찰을 불러줘요!! 날 죽일려고.....

" 푹 " 경비원이 칼로 혜린의 배를 쑤신다.
말을 끝맺지 못하는 혜린, 놀란 눈으로 경비원을 쳐다본다.
어둠속에서 서서히 경비원의 모습이 드러난다.
계속 혜린을 감시하던 30대의 그 남자다.
30대 남자, 배를 움켜잡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혜린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는다.
혜린, 눈동자가 뒤로 돌아가며 쓰르르 바닥으로 넘어진다.
30대 남자, 피가 묻어 있는 혜린의 핸드폰으로 폰카를 '찰칵찰칵' 여러 장 찍어 아까 보내려던 번호로 사진을 첨부해서 보낸다.
곧, 화면에 '문자첨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란 확인 창이 뜬다.
30대 남자 만족한 듯 쓰러진 혜린을 내려다보는데,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던 남자가 다가온다.
엘리베이터 남자는 쓰러진 혜린을 보고 만족한 듯 30대 남자를 쳐다본다.
두 사람, 서서히 멀어져 어둠속으로 사라진다.

S#101 희도 집 정문 앞

희도, 우산을 쓰고 철계단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온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서는데, 핸드폰 문자 메시지 알람이 울린다.
희도, 핸드폰을 열어보는데 문자 화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충격으로 휘청하는 희도, 핸드폰을 놓치는데 바닥으로 떨어진 핸드폰 액정 위로 빗물이 떨어진다.
화면의 모습은 이혜린이 칼에 찔려 죽은 비참한 모습이다.
다시 핸드폰을 주운 희도는 눈에서 광기를 드러내며 화면을 바라보다가 허둥지둥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하지만 받지 않는다.
희도, 답답해하지만 어쩔 수 없는지 핸드폰을 안주머니에 넣고 비틀비틀 골목을 빠져 나간다.
희도의 뒤로 어두운 골목에 서 있는 가로등에 빗방울이 비명처럼 떨어지고 있다.

S#102 공중 화장실 (밤)

거울 앞에선 희도 금방 세수를 한 듯 물기 묻은 얼굴을 개수대에서 든다. 얼굴을 거울에 비춰

보는데 물기와 눈물이 뒤범벅이 된 알 수 없는 표정이다.
한참 거울속의 자신을 들여다 보다 뭔가 다짐을 하는 듯 한 표정으로 눈을 스윽 휴지로 닦고 헝클어진 머리와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S#103 희도의 옥탑방

'쾅쾅' 비를 맞으며 은아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은아: (애절하게) **희도씨! 희도씨!**

은아, 방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자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급히 방안을 둘러보는 은아.
하지만 방안은 죽을 사람이 짐을 정리한 듯 너무나 깨끗하다.
은아의 시선에 들어오는 행거의 옷들.
중년 신사가 입었을 바바리 코트와 중절모자.
그리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여러 옷가지들.
은아, 뭔가 잡히는 것이 있는 듯 손에 쥔 신문을 들고 다시 방을 급하게 나선다.

S#104. 하우스 (밤) - 태석의 몽타주

- 화투판이 벌어진다. 그 틈에 태석과 물새의 모습도 보인다.
-점점 판이 무르익는다. 거의 막판 레이스다.
- 끝발이 오르는지 계속 돈을 따는 태석. 그런 태석앞에 돈이 수북히 쌓여간다.
- 한숨을 쉬는 물새, 어쩔수 없다는 듯이 뭔가를 판돈에 던진다. 차 키다.
-차 키를 보고 씨익 웃는 태석.
- 자욱한 담배연기, 긴장감이 감돈다. 태석과 물새의 눈이 마주친다. 불꽃이 튄다.
- 패를 까고 돈을 가져갈려는 물새, 그런 물새의 손을 잡는 태석, 패를 깐다.
- 경악하는 물새의 얼굴 O . L .

#. 하우스 골목 (밤)

무척 흥분한 태석, 대박이다. 왕창 딴 것이다. 그것도 물새에게서 말이다.
돈다발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서둘러 물새의 차 쪽으로 가는 태석.
물새의 차에 올라탄 태석이 차를 몬다. 주차장을 빠져 나간다.

잠시후 주차된 화물차의 차창이 내려가면서 담배꽁초가 떨어진다.
화물차에는 사채업자 김사장이 타고있다.
김사장이 침을 " 퇘 " 뱉더니 화물차를 움직인다.
동시에 옆에 주차된 지프와 세단도 같이 움직인다. 운전자들은 김사장 일행들이다.

#. 태석 차 안 (밤)

너무 흥분된 태석, 옆 좌석의 돈가방을 보면서 클락션을 " 빵 " 눌러댄다.
핸드폰으로 희도에게 전화거는 태석, 하지만 희도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음성메일로 녹음하는 태석.

태석 : (몹시 흥분) 희도냐? 삼촌이야! 이중요한 순간에 왜 전활 안받냐?
씨발 나 한방 잡았다!!! 물새 그 새끼한테 큰거 하나 잡았어!!
너 지금 어디야? 허튼짓 하지 말고 빨리 나 한테 연락.....

순간 " 쿵 " 태석의 차를 박는 화물차. 태석 핸들을 급히 꺾는다.
태석의 차가 화물차를 피해 달린다.
하지만 집요하게 태석의 뒤를 쫓아오는 화물차, 거의 태석의 차를 깔아뭉갤 태세다.
태석, 차선을 옮겨가면서 화물차의 위협을 빠져나간다.

하지만 김사장 일행의 다른 차들이 태석의 차를 몰아 붙인다.
점점 한쪽으로 밀리는 태석의 차, 차선을 빠꿔서 빠져 나갈려고 한다.
" 끼이익 " 그런 태석의 차를 가로막는 김사장 일행의 차.
태석, 핸들을 꺾어 후진을 하면서 차를 뺄려고 한다.

순간 강한 헤트라이트가 태석의 눈을 비춘다. 눈이 부셔 눈을 감는 태석.

" 콰쾅 !!"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던 화물차가 태석의 차를 그대로 박아버린다.

" 펑!! " 소리와 함께 태석의 차가 터져 불길에 휩쌓인다.

S#105 청솔금융 사옥 근처 (밤)

희도 높다란 건물을 올려다본다.
희도. 시계를 본다. 밤 12시.
심호흡을 크게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희도.

S#106 청솔금융 (밤)

로비에 들어선 희도. 텅 빈 주변에 당황한다. 이 때 촤르륵 내려지는 현관 셔터.
털컥 잠긴다.
실내 조명들 일제히 소멸하고 비상등 몇 개만 켜진다. 불안해지는 희도.
이때 땡 소리를 내며 로비에 멈추는 엘리베이터.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을 뿜으며 문이 열린다.

S#107 엘리베이터 (밤)

희도가 타자마자 자동으로 눌러지는 꼭대기층. 일순 당황한 희도 결심한 듯 가만히 서 있다.
빠르게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오르는 좁고 긴 통로를 밑에서 비추는 카메라.

S#108 꼭대기층 복도 (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희도. 복도로 한걸음을 내딛자 안내등이 하나씩 켜진다.
단계적으로 표시되는 안내등을 따라 긴 복도를 걷는 희도. 회의실 앞에 다다른 희도.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S#109 회의실 (밤)

텅 빈 회의실. 어둡다. 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
희도가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스르륵 잠긴다. 희도 한걸음 옮기자 긴탁자의 일정부분만 조명이 들어온다.
탁자 위에는 액정화면이 달린 기계가 놓여있다.
가만히 기계를 들어보는 희도. 중앙에 지문인식기가 달려있다.
희도 잠시 고민하다가 엄지손가락을 그곳에 대고 강하게 누른다.
식별음이 나오며 액정에 뜨는 인식확인 사인. 이내 각종 계좌의 사항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액정에 뜨는 내용-**계좌를 전부 이체 하시겠습니까?** 희도 입가에 미소가 비친다.
희도 오케이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나지막이 들리는 음성. 어둠 속의 노식이다.

노식: 성공인가?

희도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면 맨 끝자리 창가에 노식이 앉아있다.
희도 인식기를 든 채 노식을 쏘아본다. 박수를 치며 천천히 다가오는 노식.

노식: (차가워서 따뜻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높은데 오니까 야경 멋지지?**
희도:…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한다.

노식: 자네를 보니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군.

분노하는 표정의 희도, 간신히 진정시킨다.

노식: 머리 많이 썼더구만…
희도: (비웃으며) **마찬가지 아닌가?**

노식 무슨 소리냐는 표정.

희도: (노려보며)**평생 비겁한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구?**
노식: (여유있게) **몸이 바뀐 걸 말하는 건가? 그 내기엔 자네도 동의했던 걸로 아는데?**
희도: (언성을 약간 높이며) **노예가 된다고 했지. 몸을 바꾼다고는 안했어.**

노식 웃는다.
분노로 일그러지는 희도의 얼굴.

노식 : 그래... 이 야밤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
희도 : (강하게) **다시 한번 내기를 하자.**
노식 : (희도를 놀리듯) **내가 자넬 이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 봤나?**

희도, 그런 노식에게 지지 않고

희도 : (다시 담담하게) **아니. 그렇게 할 사람이었다면 번거롭게 첫 번째 내기도 하지 않았겠지. 그냥 날 잡아다가 수술을 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
노식 : (살짝 미소를 지으며) **훌륭해. 그리 긴 시간도 아닌데 나에 대해 정확하게 궤뚫었군. 난, 적당한 속임수로 상대를 도박판까지 끌고 오기는 하지만 본 게임에서는 절대 속임수를 쓰지 않지. 그게 내 원칙이야.**
희도 : 이번에도 그 원칙을 지키길 바래. 내가 이기면 내 몸을 돌려줘. 당신은 모든 권한은 물려받았지만 그 권한을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은 잊었더군. 은행안의 금고. (주머니에서 법인 카드를 꺼내보이며) **이것과 당신 몸의 지문이 있어야 열수 있지. 이번 게임에 난 당신의 모든 재산을 걸지.**

희도를 빤히 보다가 웃음을 터트리는 노식.

노식 : 이봐,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버릴 인간이 어디 있겠나? 안그래?
희도 : (의외인 듯 조금 당황하며) **...**
노식 : (웃음 거두고, 진지하게) **대신... 다른 걸 건다면 내기에 응해주지.**
희도 : 다른 건 뭘 원하는데?
노식 : 내가 원하는 건... (뜸을 들이다) **너의 기억! 은아와의 추억.**
그 추억을 간직한 너의 기억이다. 어때?

얼어붙은 희도의 표정.
그런 희도를 중심으로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카메라.
오버랩되며 은아와의 추억의 단편들이 빠르게 스쳐지나간다.
바닷가에서 사발면 먹던 기억, 손을 잡고 밤마다 배웅 해주던 기억, 같이 밥먹고, 아파하고, 울고 웃던 추억들...
그 위로 들리는 노식의 목소리.

노식 : 만일 내가 이긴다면 자네의 뇌 중 기억을 담당한 부분만 이식을 받는 거지. 그 기억만 이식해도 나의 인격에 아무 변화가 없지. 그렇게 되면 너가 그렇게 사랑했던 은

아가 아팠을 때 밤새도록 손을 잡아주었던 추억도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은아와의 추억들이 필름이 뒤엉킨 것처럼 마구 뒤엉킨다.

노식 : 자네의 기억마저도 갖게 된다면 난 완벽한 민희도가 되는거지. 자넨... 기억이 없으니 은아를 봐도 알아보지도 못할거고 다시 날 본다 해도 내가 자네의 껍데기라는 것 조차도 기억 못하겠지.

얼어붙은 표정의 희도. 노식과 희도의 눈빛이 숨가쁘게 교차된다.

S#110 회사 앞 (밤)

희도와 노식이 문을 열고 나온다. 안비서는 차를 대기시키고 있다. 그 안비서 차 옆에 택시 한 대가 급하게 달려와 멈춰 선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는 은아.
희도와 노식 놀란다. 희도는 자신의 몰골을 감추기 위해 재빨리 뒤돌아선다.

노식: (놀라면서 반가운 척) **은아야, 여긴 어떻게…**

은아 노식에게 다가가 따귀를 '짝' 날린다. 움찔하는 노식, 희도도 움찟한다.
은아 그런 노식을 무시한 채 희도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마음으로 희도의 손을 잡는다.

은아: 희도..씨. 희도씨 맞지? 왜 저 사람의 탈을 쓴 거야?

아무 말도 못하는 희도.
속으론 당황하면서 담담한 척 하는 노식.

은아: (눈물이 흐른다) **희도씨…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은아를 올려다보기를 망설이는 희도. 이내 씬 2에서와 같이 한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또 한 손은 무언가를 건네듯 은아에게 내밀면 은아 희도의 손 아래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댄다.
감격과 그리움에 차 늙은 희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은아.
은아 희도에게 다가와 희도의 입술에 입을 맞춘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는 노식.

노식: (얼굴색이 변한 희도에게) **안 갈 건가?**

희도, 노식을 바라본다.

은아: (놀라며) **희도씨, 어디 가는데? 가지마. 다시는 희도씨와 안헤어 질거야.**
희도: (어렵게 말문을 열며) **은아야. 나 믿지?** (고개를 끄떡이는 은아) **조금만 기다려줘. 분명히 내가 다시 올게.**

은아의 손을 힘껏 잡고 나서 돌아서는 희도. 희도를 부르는 은아.
희도, 차에 타자 이어 노식이 올라타고 차는 출발한다. 차를 뒤쫓아 오열하며 뛰어가는 은아.

은아: (절규하듯) **희도씨!... 희도씨! ...**

절규하는 은아의 소리에 창을 열고 뒤돌아보는 희도의 눈에도 눈물이 흐른다. 은아는 멀어져가는 차를 보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한다.

S#114 응접실(새벽)

소파에 앉아 있는 노식과 희도. 응접실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테이블 위에는 몇 개의 휴대폰들이 놓여 있다.

희도: (노식을 노려보며) **약속한 대로 내가 이기면 내 몸을 다시 가져가겠어.**
노식: 원하는 대로...
희도: (숨을 잠시 고른 뒤) **그럼 시작할까?**
노식: (약간은 긴장하며) **그러지. 먼저 선택하게.**
희도: 여자로 하겠어.
노식: 그럼 내가 남자군.

S#115 희도의 옥탑 방 (밤)

희도의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은아. 희도가 마음을 쥐어준 쪽 손을 오므리고 있다.
그 손 위에 다른 쪽 손을 덮고 눈물을 흘린다. 희도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은아.

S#116 응접실 (새벽)
※ (은아의 핸드폰 전화 번호로 게임을 안할 수도 있음)

노식: (전화기 하나를 집어 들고는 빙글거리며) **넌 처음부터 내게 승부를 걸어오지 말았어야 해.**
희도: 강한 운을 과시하고 싶은 건가?
노식: 아니, 운은 나보다 자네가 좋지...(의아해 하면) **은아를 만났으니까… 돈으로 그 앨 구할 수 있을 진 몰라도 함께 기뻐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다면 그 애가 행복했을까?** (심각하게) **그렇기 때문에 넌 결코 나의 내기 따위에 걸려들어서는 안됐어.** (다시 빙글거리며) **하긴 자네가 아니였다면 난 다른 누군가와 내기를 했겠지. 어쨌든 이미 내기는 시작된 거니까, 시작된 이상 판을 끝내야 되지 않겠나?**

노식, 전화기를 연다. 010버튼을 누른다.

노식: 첫 번째 숫자는 삼으로 하겠어.

3을 누른다.

희도: (고민하다) **구.**

9를 누르는 노식의 손

<시간경과>

씩 웃는 노식의 손에 들린 핸드폰 액정 화면. 이미 여러 개의 숫자가 찍혀 있다.

희도: (혼잣말) **지금까지의 숫자가 은아의 번호와 같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왜지?**
(입을 열어) **팔!**
노식: 드디어 마지막 숫자군.

두 사람 모두에게 긴장감이 감돈다.
노식의 알 수 없는 표정. 희도의 초초한 얼굴.

희도: (소리-울림) **5를 누르면 은아가 받는다. 여자가 받는다. 5,5,5**

노식: (입가에 웃음을 흘린다. 노식이 입을 여는 순간이 희도에겐 아주 천천히 느껴진다.) **마지막 숫자는…마지막 숫자는… 4로 하겠어.**

뒷통수를 얻어 맞은 것처럼 멍한 표정의 희도. 4를 누르는 노식의 손. 노식의 마지막 선택이 희도의 귓가에서 계속 울린다. **'4로 하겠어. 4로 하겠어 4,4,4…** 곧 신호가 떨어지고 벨이 울린다.

상대방: (중저음의 남자목소리) **여보세요?**

페이드 아웃

S#117 수술실. (밤) - 페이드 인

정수리를 마주 댄 방향으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희도와 노식.
희도는 이미 마취가 되어있는지 아무 느낌도 없다.
김박사, 희도의 심전도 그래프가 마취 상태로 완전히 빠져들자.
이제는 노식의 몸을 수술대에 고정시킨다.

노식: 이번에도 자네만 믿겠네.
김박사: (수술 도구를 확인하며 무심하게) **도박만은 할 게 못 되는 거 같군요.**
노식: (웃음 띤 얼굴로) **그 말엔 자기반성의 의미도 포함된 건가?**

김박사: (약간 단호하게) **이번 일이 끝나면 절 그만 놔주시지요.**

노식: (약간 허탈하게) **자네의 막대한 빚을 대신 물어준 게 누구지? 죽음보다 더한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건 또 누군가? 겨우 이걸로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생각을 바꾼 듯) **김박사도 그 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김박사: (못들은 척) **마취주사 놓겠습니다.**

노식에게 마취주사를 놓는다.

노식: (눈을 감고 젖어 드는 소리로) **딴 생각 하지 마. 이번 수술을 성공하면 자네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도 아무 표정이 없는 김박사.

노식: (궁금한 듯) **임의로 한 사람을 골랐을 때 그 사람이 나와 같은 혈액형일 확률이 얼마일까?**

김박사: (전과 달리 편안한 표정으로) **궁금하세요? 골수이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적합성항원, HLA형이 비혈연자간에 일치할 수 경우는 수천 만명 중에서 겨우 1명 정도이지요.** (차가운 미소를 띄며) **뇌의 크기와 세포마저도 맞아떨어지는 확률을 찾아낸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승부는 회장님만 한다고 생각하시죠?**

의지와 상관없이 감기던 노식의 눈이 급격하게 떨리기 시작한다.

노식: (눈을 크게 뜨는데,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내 아들인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무표정한 김박사.
노식, 의식이 몽롱해지는지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며 김박사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하지만 수술 준비만 묵묵히 하는 김박사.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노식.

(회상 몽타주)
*** 여기서 몇 개만 쓸 것임.**

- 선박한 배 주위에 끼룩거리며 떠도는 갈매기들.
  생선을 나르고 손질하고 팔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혼잡한 어시장.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남자. 노식과 닮았다.
  그 앞에서 수줍게 쳐다보는 여자-노식의 애인 은혜.
  분주하던 노식 은혜와 눈이 마주치자 행복해 한다.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는 순박한 이들.

- 해변 바위 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들. 일어나 앉은 노식 은혜의 배에 머릴 대고 기뻐한다.

- 다시 어시장. 탐욕스럽게 생긴 40대 박주사가 은혜에게 다가와 어깨를 만진다.
박주사, 은혜의 손을 끌고 노식의 곁을 지나친다. 아무말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노식. 분노한 표정.

-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는 어슴푸레한 새벽.작은 짐보따리를 든 은혜가 노식의 뒤를 따라걷는다.
심한 바람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은혜를 위해 길을 내던 노식. 뒤돌아보면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

- 은혜의 시점. 심한 눈보라 사이에서 배를 움켜지고 있는 은혜.
노식이 걸어가던 길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은혜.

- 은혜와 박주사의 결혼식.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은혜의 표정이 슬프다.

- 은혜가 아이를 낳는다. 사내아이다. 은혜의 품에 안긴 아이.

- 강보에 쌓인 아이 안고 젊은날의 김박사를 찾아온 박주사.
김박사 실험관에 든 아이의 피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심각한 얼굴.

- 궁색한 차림의 남자에게 돈과 아이를 건네는 박주사. 눈빛이 심상치 않다.

- 목을 매달고 죽은 은혜.

- 진료대 위에 누운 노식의 피를 뽑는 나이먹은 김박사. 노식의 피를 분석하다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든다. 문득 어떤 생각이 스치는 표정.

- 10살 남자아이. 희도를 많이 닮았다. 크레용을 들고 스케치북에 열심히 그림을 그려댄다.
하얗게 웃는 아이의 눈망울.

- 길게 페이드 아웃.

S#118 대학로 거리 - 페이드 인.

자막 - 한 달 후

대학로의 한가한 모습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연인들, 사람들.
학생들 몇 명이 거리 농구를 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그 위로 비둘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그런 여유로운 모습 속에 근처에서는 여전히 거리의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다.

화가들 앞에서 그림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뒤에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왠지 기대감에 가득 찬 모습을 하고, 누굴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보면 머리를 묶고 있는 은아다.
그 때, 뒤에서 은아를 부르는 소리.

소리: 은아야!

은아, 소리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뒤돌아보면 화구 도구를 들고 서 있는 희도.

은아: (놀라고, 감격스러움에) **희도씨...정말 희도씨 맞어?**
희도: (정말 순수한 눈빛으로) **응. 맞어 미안해... 그동안 힘들었지?**
나도 어두운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느낌이야.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는 은아.

은아: (아직도 완전히는 못 믿겠다는 톤으로)**희도씨 내 머리 스타일 바꿨는데 이 머리 언제 했는지 기억나?**
희도: (당연하다는듯 약간 웃으며) **너랑 처음으로 경주 여행 갔을 때... 너 아침에 머리를 못 감아서 고무줄로 묶었던 그 머리잖아...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고... 은아야 이젠 걱정하지마. 다시는 널 안 떠날거야.**
은아: (눈물이 닦으며 희도의 말이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 희도씨 맞지? 그지?**

희도, 한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다른 한 손을 은아에게 내민다. 은아, 희도의 행동에 둘만의 사인이었다는 것을 알겠다는 듯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희도에게 확 안긴다.

은아: (안긴채 흐느끼며) **그동안에 어떻게 된 거야? 난 희도씨를 영영 못 볼줄 알았어.**
희도: (은아의 몸을 꼬옥 안으며) **미안해 은아야 나도 널 너무 보고 싶었어...**
(은아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렇게 무서운 내긴, 다신 하지 않을꺼...**

은아, 계속 흐느끼며 희도를 보고 있는데.

희도: (그런 은아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내가 다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 뭔지 알아?**

궁금하다는듯 희도를 쳐다보는 은아.

희도: (다정하게)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널 그리는 거였어... 지금 이 자리에서 ...**
은아: (사랑스럽게) **정말? 그럼 나 지금 여기서 그려주는 거야. 예쁘게 그려줘야 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희도. 화구 도구를 자리에 편다.

은아: (너무나 좋은 듯) **희도씨, 준비할 동안에 내가 콜라 사올게. 자긴 그림 그릴 때 항상 콜라를 먹었잖아. 좀만 기달려.**

은아 뒤돌아서 콜라를 사러 뛰어간다.

희도: (큰소리로) **은아야!** (돌아보는 은아) **나 콜라 싫어하잖아. 내가 좋아하건 자판기 커피잖아. 그거나 한 잔 뽑아줘라.**

그 말에 이제는 정말 안심이 된다는 듯 활짝 웃는 은아.

은아: (활짝 웃으며) **정말 희도씨 맞구나... 이젠 다신 의심 안할게** (약간 미안한 듯) **이게 마지막이었어. 희도씨.**

그것조차도 사랑스럽다는 듯 웃어 주는 희도.

은아: (희도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이제 정말 나 안떠나는 거지? 아냐** (귀엽게) **이젠 내가 희도씨를 꼭 지킬거야.**

천진난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희도.
커피 자판기 쪽으로 뛰어가는 사랑스런 은아를 쳐다보며 담배를 꺼내 성냥에 불을 붙이는 희도. 길게 한 모금을 들여마신후 '후' 내뱉는다. 바람처럼 살아지는 담배 연기를 쳐다보는 희도.
그는 **노식**이다.
그 모습에서 엔딩 타이틀이 조용히 올라간다.
끝.